



조선강산

6

주제 109(2020)
루체 제370호 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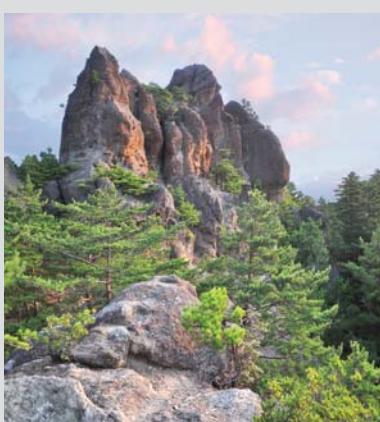
표지: 실뜨기

주제 108(2019)년 5월 촬영

갓가지 꽃으로 단장된 봄계절
에 모란봉유원지에서 쌍둥이자
매들인 리명정, 리명영어린이들
이 어머니와 실뜨기놀이를 하고
있다.

매번 방법을 바꾸어 엉뚱한 모
양을 현속 만들어내는 어머니와
쌍둥이자매들. 웃을 입어도 치
마저고리를 입고 놀이를 해도
민속놀이를 즐겨하는 조국인민
들의 모습이 이 가정에 그대로
비껴있는듯싶다.

본사기자 김성철



뒤표지: 칠보산 금강대

편집: 박철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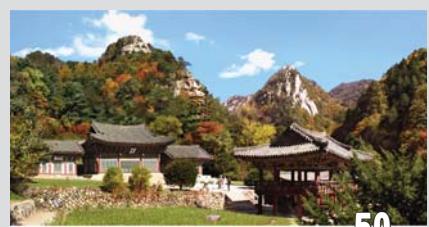


11

차 례

정면돌파전의 열쇠	2
첨단기술제품개발기지	3
정보화실현의 앞장에서	6
대 담	
과학기술로 인민경제발전을 적극 주동한다	8
『목란』 자연에너지제품개발자들	9
질체고에로 이어진다	12
제 힘을 믿고	14
건재품의 가지수를 늘여	16
새로운 의약품개발사업	18
김정은, 그이에 대한 100문 1답	19
력사인물	
동물화가	20
첫삽에 실린 무게	21
상봉, 평화의 흐름	22
최왕이 낳긴 여운	23
사전	
만경대학생소년궁전	2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무장에는 무장으로	26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를 열어주시여	28
일화	
훈연일체의 당으로	29
삼지연시 남새온실농장	30

국제민명사전에 모른 학자	32
늘어 아는 새 《서울》	33
도안창작가들	34
학생소년들의 과외소조활동	36
4연승을 안아온 감독	38
우리의 생활	40
《백학》 치과의 생활 품들	41
《나래》 제품들	41
편지	
보고싶은 고모님에게	42
《정말 물질을 따라》	43
고향소식	
언진산의 주인들	44
조국의 품에 안겨	
한 교육자의 긍지	46
소나무에 비낀 냄새	47
일제의 고전압수소 각책동	48
강원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3)	50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17)	51
지명유래	
평양의 대동강	52
전설	
금강굴의 명만수	53
민족의 향기	
찰구는 《내과의사》	54
사화	
리순신장군과 로인	54
명승-석갈구곡	56



상식	
쇠 뇨	6
민족을 식-장	29
효능높은 생강	36
조선속담(근면성)	16
유모아	
술을 많이 마시면...	51

정면돌파전의 열쇠

오늘 조국은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정면돌파전을 힘있게 벌려가고있다.

지난해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의거할 무진장한 전략자산은 과학기술이라고 하시면서 지금과 같이 경제사업에서 애로가 많을 때에는 과학기술이 등불이 되여 앞을 밝히고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은 정면돌파전의 열쇠는 과학기술이라는 진리를 명시해주고있다.

그러면 과학기술이 정면돌파전의 열쇠로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것인가.

그것은 과학기술이 경제전선에서 적대세력들의 제재봉쇄책동을 무력화시키고 국가경제를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장성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힘있는 추동력이기때문이다.

오늘 적대세력들과의 장기적대립이 기정사실화된 현 상황에서 국가의 과학기술력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적들은 경제건설은 물론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제재항목에 올리고 조선에 나사못 하나도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제재가 풀리기를 앉아서 기다리며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적들의 올가미에 스스로 목을 들이미는 자멸행위나 같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키는것이 바로 과학기술의 힘이다.

쓰면 줄어들고 한계가 있는 자연부원과 달리 과학기술의 잠재력은 무한대하다.

무진장한 전략자산인 과학기술만 들어주면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할 때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압살에도 끄떡없이 경제의 비약적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것은 조국의 현실이 실증해주고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것

을 자기 나라의 자원에 의거하여 해결하고 충족시켜나가려는것이 조국의 변함없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이 정면돌파전의 열쇠로 되는것은 또한 과학기술발전에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조국을 첨단과학기술개발국, 선진문명개발국으로 전변시켜나갈수 있기때문이다.

오늘의 지식경제시대에서는 과학기술이자 곧 생산이고 경제발전이다.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첨단과학분야를 끊임없이 개척해나가야만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승리를 거둘수 있다.

사회주의강국의 리상과 목표도 오직 과학의 첨단요새를 점령해야만 이룩될수 있는것이다.

지난 시기 세계에 도전하고 세계와 경쟁하며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두뇌전, 탐구전이 맹렬히 벌어져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는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세계와 당당히 겨루기 위해 경제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현대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과학과 기술, 지식이 생산을 주도하는 경영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있으며 생산과 기술관리를 비롯한 모든 공정을 개발창조형으로 전변시켜나가고있다.

조국에서는 과학기술부문의 10대전망목표에 예견된 연구과제를 무조건 제기일에 완성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특하는 경제부문전반을 활성화하고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의의가 큰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심을 두고있다.

세계를 굽어보는 안목과 우리 식 착상, 우리 식 창조로 조국을 첨단과학기술개발국, 선진문명개발국으로 전변시키자는것이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의 확고한 신념이다.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가진 인민의 애국적열의에 과학기술이 안받침되면 이 세상 못해낼것도 두려울것도 없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가로놓인 도전과 난관의 근원을 뿌리채 뽑으려는것이 오늘 조국인민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본사기자 김성경

첨단기술제품개발기지

김책공업종합대학에 꾸려진 미래과학기술원의 운영이 활성화되고있다.

미래과학기술원은 첨단기술제품의 개발과 생산, 제품검사를 위한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실험실, 개발실들로 꾸려져있다.

건물에는 전자수감장치개발생산구역, 분석기개발생산구역, 나노제품개발생산구역 등 10여개의 개발생산구역이 층별로 배치되어있고 가치있는 새 기술제품종자들을 탐색하는 인터네트교류구역도 있다.

과학기술원에서 누구나 관심을 모으는 곳은 1층의 전시장이다.

수백 m²의 면적에 수백점에 달하는 첨단기술제품들이 실물이나 모형, 도해판의 형태로 전시되어 대학의 과학연구구들을 집약적으로 볼수 있다.

부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전시장은 첨단기술의 보급 및 유통을 사명으로 하는 교류마당으로 되고있다. 전시된 각종 전자제품들과 선박모형들, 첨단분석설비들, 여러가지 성능높은 수감 및 측정장치들이 지금 현실에





도입되고 있는데 경제적의
의가 크다.》

과학기술원에서는 최근
년간 많은 첨단연구성과
들을 내놓았다.

전자수감장치개발생산
구역에서 개발된 공업용
수질분석기, 유해가스분
석기, 전자식폐하게 등
10여종의 제품들은 안변
양어장과 순천린비료공
장, 증산린회석광산을 비
롯한 수십개의 단위에 도
입되어 생산실수률과 제
품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
지하고 있다.

전자수감장치연구실 실
장 김금철은 《우리는 수
입에 의존하던 폐하수감
부, 산소수감부를 비롯
해서 10여종의 수감부를
완전히 국산화하였다. 특
히 강휘성연구사(30살)
가 주개발자가 되어 개발



한 공업용전기전도수감부는 종전에 비해 제
작원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특성이 개선된것으
로 하여 국제학술계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
하였다.

이곳 연구사들은 올해 지능형수질분석기를 비
롯한 21종의 각종 수감장치를 개발생산하여 현
실에 도입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

분석기구연구소에서도 적외선흡수식탄소류황
분석기, 원자발광스펙트르분석기와 같은 첨단제
품들을 개발한데 이어 원료를 분석하는 X선형광
분석기를 공업현장들에 도입함으로써 생산의 효
률을 높이였다.

《이외에도 첨단제품개발에서는 많은 전진이
이루되었다. 그러나 개발 그자체가 중요한것이
아니다. 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실천
형의 인재, 개발창조형인재로 준비시키는데 있
다.》고 원장 최영남은 말하였다.

과학기술원에서는 연구사업에 대학생들을 적
극 인입시켜 그들이 현실을 알고 보다 가치있는
첨단제품들을 개발해내게 하고있다.

과정안에 따르는 실험실습들을 진행하면서도
학생들은 자기가 착상, 설계한 제안들을 연구
사들과 함께 직접 개발, 생산, 검증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천실기능력을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첨단제품의 부단한 개발과 창조형의 인재육
성, 이것은 미래과학기술원이 내세우고있는 항
구적인 목표이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정보화실현의 앞장에서

국가과학원 지능정보연구소는 정보분야에서 실력있는 집단이다.

주체91(2002)년에 발족한 연구소는 선진기술에 끊임없이 도전하여 수년만에 활성화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현재 연구소는 여러 연구실과 수십명으로 된 기구체계를 갖추고 나라의 정보화실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연구소는 지금까지 천수백건이나 되는 각종 연구과제를 맡

아 수행하였는데 그중 국가급 연구항목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 항목에 속하는 과제가 60%이상 을 차지하였다.

연구소성원들의 대다수가 김책공업종합대학, 리파대학을 졸업한 20대, 30대의 젊고 쟁쟁한 연구사들이다.

최근년간에만도 이들은 프로그램도구들과 프로그램개발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망용용연구실의 연구사들은 화상협의체계 《한마음》을 개

발한데 이어 그를 응용한 원격 교육체계, 원격학습토론체계, 원격학습문답체계, 수술장협의 체계 등의 정보기술품들을 내놓았다. 그리고 여러 봉사기를 쓰지 않고 현존 망을 통하여 늘어나는 동시가입자들의 정보를

보장하며 음성파 화상의 질을 높일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였다. 이들이 개발한 프로그램들은 과학기술전당과 인민대학습당, 김만유병원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 광범하게 리용되고 있다.

경기지원체계연구실에서 개발한 가상교수참관체계를 비롯한 많은 정보

기술제품들은 여러 교육단위들에 도입되어 교육의 정보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정보보안연구실의 연구사들도 실행화일보호프로그램 《요새》3.0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는데서 매우 효과적인것으로 하여 주체105(2016)년, 주체106(2017)년 정보기술우수제품으로 등록되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연구집단이 사색을 기울이고 완강하게 실천하며 이룩해놓은것들이다. 연구사들은 개발과제가 나서면 그것을 첨단수준에서 신속히 개발하는것을 목표로 삼고 연구사업에 정열을 기울이고 있다.

이곳 연구집단이 개발한 첨단제품들은 결코 이들의 창조



적인 두뇌와 젊음으로부터 분출되는 열정의 산물만이 아니다.

첨단돌파의 주도권은 정보화 실현에 있으며 그 앞장에 자기들이 서겠다는 자각과 열의가 안아온 결실인 것이다.

연구소는 3년간 연속 10대최우수정보기술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글 본사기자 전룡진
사진 본사기자 김평

우리나라는 쇠뇌의 역사가 가장 오랜 나라이다. 일명 기계활로 불리우는 쇠뇌는 활과 몸통의 두 부분으로 되어있다. 활은 화살 또는 다른 형태의 탄알에 발사력을 주고 몸통은 탄알을 재우고 그것의 발사방향을 잡아준다.

흔히 쇠뇌는 쓸 때마다 탄알을 하나씩 재우게 되어

있는 단발식쇠뇌와 단번에 여러개의 탄알을 탄창에 재우는 련발식쇠뇌로 되어 있다.

우리 선조들이 고대에 쓴 단발식쇠뇌

는 평양근방의 고대무덤에서 발굴되었다. 쇠뇌는 점차 발전되어 7세기 중엽에는 화약통사식쇠

상식

쇠뇌

뇌로 간주되는 사거리가 1500여m인 천보노가 발명되었다.

이 사격무기들은 그 구조와 동작원리, 제작기술이 우수하여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고구려시기의 쇠뇌를 두고 다른 나라 무기전문가들은

《그 구조가 간단하고 교묘한것으로 하여 현대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오늘의 소총(보총)처럼 동작하니 흥미가 있다. 2천년전의 고안이라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다.》

* * *

과학기술로 인민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한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서기장 김룡파 본사기자와의 대담—



기자: 교육단위가 주최하는 과학기술축전장에서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만난 기회에 현시기 과학기술로 인민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가고 있는데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김룡: 오늘 과학자, 연구사들은 정면돌파전을 벌릴 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정신을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사업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섰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의거해야 할 전략자산은 과학기술이며 정면돌파전의 열쇠도 다름아닌 과학기술을 털어쥐고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현실적이고 가치 있는 연구성과들을 내놓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자: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과학연구기관들이 선차적으로 힘을 넣는 부문은 주요공업부문이라고 봅니다.

많은 연구사들이 금속, 화학, 전력을 비롯한 주요공업부문에서 생산적 양양을 일으키고 경제 전반의 활성화와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의의가 큰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룡: 그렇습니다.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과학연구기관의 과학자, 연구사들은 물론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의 교원, 연구사들이

과학연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 나간 그들은 에너르기 절약형의 산소열법용광로를 일떠세우고 산소분리기를 증설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여 올해가 금속공업이 들고 일어나는 해로 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을 다그치고 린회석광산들의 환원복구를 위한 과학연구활동을 힘있게 벌리고 있으며 신의주화학섬유공장의 현대화를 위한 연구성과들을 련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등에서는 전력생산을 늘이는데서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생산정상화 실현을 비롯하여 그들이 벌리고 있는 과학연구활동을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기자: 어느 공장, 기업소, 농장이나 할 것 없이 자체의 기술력으로 자기 단위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적지 않게 풀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김룡: 그렇습니다. 일군들부터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연구성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은률광산, 안주절연물공장, 천성청년탄광, 경성애자공장, 선천농기계작업소 등의 일군들이 바로 그려합니다.

일군들의 이러한 판점과 자세는 그대로 기술자, 종업원들의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추동하고 있으며 더 큰 성과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안주절연물공장에서는 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이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절연물생산을 정상화한데 이어 질좋은 절연와니스를 다양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연물의 생산성과 질을 보다 높이며 그 지표를 높이기 위한 탐구를 보다 줄기차게 벌려 선진수준의 여러 가지 절연칠감을 련이어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기자: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첨단기술분야들을 개척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도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룡: 주목되는 점은 20대, 30대의 청년과학자들이 세계적인 두뇌경쟁으로 되고 있는 분야들의 연구에 대담하게 뛰여들어 국제학계가 미해명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과학리론적 문제들을 남먼저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성과들은 조국의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귀중한 밑거름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적대세력들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려고 갖은 봉쇄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의 옳바른 과학기술정책이 있고 장성강화된 과학기술력량이 있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이 세차게 벌어지는 공화국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정면돌파전의 열쇠, 과학기술을 더욱더 틀어쥘것이며 과학기술선행, 과학기술발전으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뚫고나갈 것입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목란》 자연에너지기제품개발자들

산을 회사가 자체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의 자연에너지기제품제작소에서는 년간 수십MW 능력의 각종 용도와 규격의 태양빛전지판들과 그 응용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목란》 자연에너지기제품들은 국내에서 품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수요가 높다.

항온, 항습, 무진화가 보장되고 접합기와 레이저 절단기를 비롯한 고도로 정밀화된 설비들로 장비된 제작소의 생산공정은 제품의 질을 담보하고 있다.

전자다매체봉사기지로 유명한 목란광명회사가 자연에너지개발의 중심지로 되었다.

회사가 자연에너지개발을 또 하나의 중요한 업무로 받아들인 데는 동기가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전자다매체들을 보급하고 립체를 동영화판운영에 필요한 전자설비들을 생산하는데서 회사앞에 나선 제일 난 문제는 전기였다.

리광수사장은 그 방도를 자연에너





이곳에서 생산되는 태양빛전지판의 일부

르기제품개발에서 찾았다.

『그때 우리는 전기를 해결하는 사업을 회사의 존망과 관련한 사활적인 문제로 받아들였다. 각오가 든든해지자 막혔던 물목이 터지듯이 방안들이 쏟아져나왔다.』라고 그는 회상하였다.

연구사들은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으로 첫 시제품인 다결정태양빛전지판을 개발하였으며 생산공정의 계렬화도 실현하였다.

큰걸음을 내디딘 그들은 개발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는 다용도화된 박막형태양빛전지판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생산공정도 현대화하였다.

제작원기가 낮고 약한 빛도 흡수하여 전기를 생산할수 있으며 단열기능도 있어 록색마감재와

통합조종실



라고도 할수 있는 제품은 개발되자마자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다.

회사는 제품개발만이 아닌 그 리용에서도 매우 진취적이었다.

처음으로 남포시 와우도구역에 있는 정양소를 개건하면서 자연에네르기발전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 회사는 귀중한 경험을 얻었다.

당시 많은 기관들에서 리용하던 독립형발전체계는 조명과 난방, 전자제품사용에만 국한되어있었다. 이런 경우에조차 용량이 큰 값비싼 축전지의 사용으로 계통구성에 많은 자금이 들었다.

『록색건축화에로 나가는 세계적추세에 비추어볼 때 우리는 조명이나 난방보장만으로는 만족할수 없



초음파세척기를 통과한 유리검사



다결정태양빛전지판제작

파일종합가공공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 도입되었다.

지금 이곳 자연에네르기개발자들은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창조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있다. 사장은 말하였다.

『자연에네르기개발을 통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습관을 불이게 되었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언제나 자기의 손에 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회사의 벽면들에 설치된 태양빛전지판들



기초화장품직장

평양화장품공장에서는 과학기술보급 실운영을 통하여 다양생산으로부터 제품의 질제고, 다양화에로 확고히 전환해나가고있다.

공장의 과학기술보급실에는 수십만 건의 과학기술자료가 들어있는 자료기지들과 전자열람실, 원격강의실, 과학기술도서실이 있어 누구나 일하면서 현



과학기술보급실에서

화장품연구소에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일부

질제고에로 이어진다

대과학기술을 배울수 있게 되여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서 원격교육을 받고 있으며 과학기술보급실리용에서도 적극적이다. 종업원의 대부분을 이루는 여성로동자들도 이에 짹지지 않는다.

지난 시기 원격교육을 받는 여성로동자는 몇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수십명으로 늘어났다.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속에서 과학기술보급실리용자들과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는데 맞게 과학기술보급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체계적으로 강화할뿐아니라 대학교원, 연구사들의 초빙강의도 자주 조직하고있다. 그리고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주별, 월별로 짜고들어 진행하는 한편 종업원들에게 학습파제를 계획적으로 주고 그 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있다.

원격교육학부의 학생들은 대학에서 진행하는 과정안에 따라 강의를 받으며 생산실천에 절실히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공장의 과학기술발전과 설비현대화, 제품의 질제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해결하고있다.

공장의 기사장인 강민심은 『과학기술보급실 운영과 원격교육과정을 통해 과학적인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울수 있었을뿐아니라 용기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원료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질을 현저히 높일수 있게 되였다. 기초화장품직장 로동자 리영실, 황명희, 분장화장품직장의 문인성을 비롯한 많은 로동자들도 맡은 설비의 원리에 정통할수 있었고 그 과정에 가치있는 새 기술혁신안을 내놓게 되였다.』라고 말하였다.

활발히 진행되는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은 제품의 질제고와 생산장성에로 이어지고있다.

새 기술혁신안들은 전국적인 과학기술축전들에서 순위권에 입선하고있으며 얼마전에는 공장의 과학기술보급실이 전국적인 모범과학기술보급실로 선정되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은하수』화장품들의 질도 훨씬 개선되어 국내의 품질인증은 물론 유라시아경제동맹의 품질인증을 받게 되였으며 제품들은 국내수요를 충족시키면서 해외에 적극 진출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구매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 힘을 믿고

평안북도의 구장세멘트공장이 자기의 물질기술 적토대를 더한층 강화하고 있다. 최근시기 공장에서는 회전로들을 전면개건하고 새로 수직로를 건설하였으며 새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였다. 뿐만아니라 탄산칼시움생산능력도 훨씬 높이였다.

별로 크지 않은 세멘트공장에서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 이런 성과를 거둔것은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 자기 힘을 믿고 정면돌파전을 벌려온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의지가 안아온 결실이라고 볼수 있다.

수직로건설과정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공장에서 새로운 수직로건설에 착수하였을 때 자금과 설비도 모자랐지만 보다는 처음 해보다나니로건설경험과 기술이 미약한것이 문제였다. 그런데로부터 초기 일부 사람들은 신심을 못 가지고 있었고 필요한 중요설비들은 수입에 의존하려고도 하였다. 하지만 기술자들은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 수직로설계를 완성함으로써 로건설의 첫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로동자들도 서로의 지혜를 합치고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여 필요한 많은 설비와 부속품들을 만들어내였으며 대담한 공법으로 짧은기간에 설비조립을 끝내였다. 그 과정에 그들이내놓은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이 도입되었다. 그려

나 시운전과정에는 실패가 거듭되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곳사람들은 주저를 몰랐고 줄곧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고 퇴치하였으며 끝내는 성공을 안아왔다.

이런 사업기풍, 사업본때는 회전로들의 전면개건공사장과 탄산칼시움생산능력확장공사장들마다에서 발휘되었다.

지금 이곳 사람들은 이룩해놓은 창조물들에 대한 자부심에 넘쳐있다.

그것은 제손으로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을 꾸리고 세멘트생산수준을 훨씬 끌어올려 도안의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한 기쁨이며 보다는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 확신이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건재품의 가지수를 늘여

천리마전재종합공장은 도처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건축물들에 나라의 자원과 원료,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생산한 건재품으로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를 실현하도록 하는데서 적지 않은 뜻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지난 기간 여러가지 질좋은 건재품들을 생산하여 삼지연시와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보내준 공장에서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건재품의 질을 더욱 높이고 생산을 늘이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철판지붕재, 경량강철구조물, 수지건재를 비롯한 직장들에서는 날로 높아가는 각이한 형태와 규격, 색감을 가진 수지창파, 늄창, 차열복합판, 수지판, 철울타리, 쇠그물울타리 등을 수요에 따라 원만히 생산보장하고 있다.

블록생산에서는 블록의 백화현상을 없애

기 위한 사업도 심화시켜 질을 철저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

금속건구직장에서는 수도꼭지생산공정과 수지욕조생산공정을 새로 꾸려놓고 새형의 수지욕조와 여러가지 형태의 활동수도꼭지들을 생산하고 있다. 인체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활동수도꼭지는 수입제품에 비해 질과 형태에 있어서 비할바없이 우월한것으로 하여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건재기술연구소 실장 김윤철을 비롯한 연구사들은 새로운 첨가제를 개발하여 수입에 의존하던 수지상수관을 국산화하였으며 유리섬유복합폴리프로필렌3겹판(GF-PP)에 대한 국산화비중을 훨씬 높인것을 비롯하여 발포수지오물을 재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지배인 김혁철은 『건재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더욱 높여 어디서나 먼저 찾는 건재품으로 되게 하는 것이 공장이 내세운 목표이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려해,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조선 속 담 (근면성)

- 가마속의 콩도 삶아야 먹는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노력을 들여야 은을 나타낸다는 것을 비겨이르는 말이다.

- 돌찌귀에는 녹이 쓸지 않는다
사람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수양을 쌓으면서 일하면 침체나 퇴보가 없다는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을 비겨이르는 말이다.
- 부지런한 물방아는 열새가 없다
무슨 일이나 쉬지 않고 부지런히 하면 일이 잘되여가는 법이라는 것

을 비겨이르는 말이다.
- 천금사랑은 없어도 일사랑은 있다
천금으로 남의 사랑을 억지로 살 수는 없어도 일을 잘하면 남의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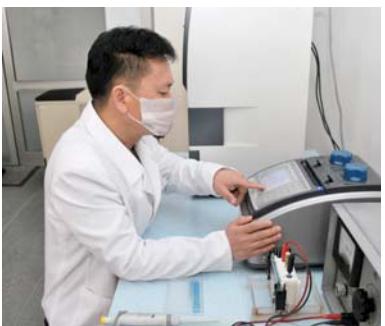
새로운 의약품 개발사업

의학연구원 의학물학연구소의 연구사들이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의약품들을 개발하여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홍주혁 실장을 비롯한 이곳 연구사들은 여러가지 난치성질병 치료에서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는 비모듈린주사약을 새로 개발하여 내놓았다.

이들은 이미 전부터 면역증강 작용이 강한데 비해 부작용이 심하여 사용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어느 한 미생물을 연구종자로 하여 약품개발에 달라붙었다.

세계적으로 이 미생물에 대한 파악의 부족으로 연구에 도움이 될만한 문헌자료가 적었고 미생물의 정제방법은 물론 인체의 적용용량과 방법, 합리적인 약성분배합비율에 이르기



까지 이들의 연구에서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꾸준한 연구와 수백 번의 동물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 마침내 미생물

의 충분한 림상도입 가능성 확신하게 되었다.

이에 토대하여 이들은 림상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새로운 주사약의 작용상특성과 적용방법들도 해결하였다. 이것은 약품개발에서 큰 전진으로 되였고 연구와 림상실험과정을 거쳐 비모듈린주사약개발로 이어졌다.

이곳 연구집단이 개발한 면역조절제인 비모듈린주사약은 만성감염성 및 알레르기성질병 치료에서 작용이 뚜렷한 것으로 하여 치료효과가 대단히 좋다고 한다. 이외에도 호흡기 및 위장관의 감염성, 비루스성질병들에 대하여 효과적인 면역증강 및 조절, 보조치료제로서도 약품의 효과성은 뚜렷이 실증되었다.

김옥화연구사가 개발한 고려 활성알약도 림상치료에서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첨단생물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천연고려약재의 유용성분들을 효소 또는 조효소형태로 전환하고 여기에 셀렌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만든 고려활성알약은 우수한 세포면역부활제이다.



인체의 모든 세포와 조직을 빠른 속도로 재생부활시켜주는 고려활성알약은 비루스나 세균, 진균을 비롯한 병원성미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줌으로써 각종 질병들을 제때에 예방 치료할수 있게 한다.

고려활성알약으로 몸에 면역 생물학적 저항력을 형성해주면 어떠한 병원성인자의 침입도 능히 막아낼수 있다.

비루스성 및 세균성질병, 기생충병, 종양성질병, 자기면역 성질병, 중독성질병 등에 한해서 높은 면역생물학적 활성과 독특한 치료효능을 나타내는 고려 활성알약의 효과성은 이미 오랜 림상도입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확증되었다.

뿐만 아니라 첨단연구제품개발실에서 개발한 효능높은 생물활성물질인 재조합사람인 티로이킨-2주사약도 항암작용과 항비루스작용, 유기체의 면역 기능을 증강시키는 작용이 강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건강장수에 기여하고 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지성

김정은, 그이에 대한 100문 1답

지난해 남조선의 《4. 27시대연구원》은 공화국의 실상을 소개한 도서 《북바로알기 100문 100답》을 발간하였다. 중국의 홍콩잡지 《국제현계》는 《김정은원수의 인품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있다.》고 전하였다. 주체100(2011)년 12월에만도 이와 같은 내용의 편집물이 미국의 구글에 시간당 약 23만건 게재된것을 보면 그이에 대한 관심은 많은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구상의 각곳에서 끊임없이 산출되는 그에 대한 해답을 돋고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위인상을 몇가지로 본다.

『방어인가, 공격인가』

이것은 그이의 령도방식을 두고 세인들속에서 제기되는 대표적인 의문점이다.

벨라루시의 한 친우협회는 지난해 11월 인터네트홈페이지에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책동속에서 『여느 나라 같으면 당장에 붕괴되거나 손을 들고 나앉았겠지만 조선은 더 억세게 솟구치며 자기가 선택한 길로 나가고있다.』라고 썼다.

인도네시아신문 《더 워스트 타임스》는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는 …일단 결심하고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나가는 완강한 기질을 지니고계신다.』라고 보도하였다.

올해 1월 28일 로씨야 인터네트홈페이지 《예지나야 꼬레야》에 실린 특집내용이 상기된다.

『2012년 12월 조선의 첫 실용위성발사는 김정은령도자의 담력을 파시한 중요한 계기였다. 김정은령도자는 조선의 평화적위성발사를 <미싸일발사>로 몰아붙이며 <제재>를 떠드는 …세력들의 광란적인 소동을 단호히 꺾어놓고… 현지에 직접 나가… 전과정을 진두지휘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그 이후에도 펼쳐졌다.

이를 두고 남조선의 언론들은 『숨돌릴틈없는 련속타격, 한계를 모르는 전면공세로 …서방세계의 얼을 뺏다.』라고 평하였다.

한편 중국연변대학 교수 김일은 《김정은시대 조선의 정치방식》이라는 글에서 《세계의 수많은 군사전문가들이 질풍같이 내달리는 조선의 전략무기개발속도에 놀라 그 비결을 알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아직도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썼다.

나라의 전진속도는 령도자의 공격정신과 비례한다고 본다.

돌이켜보면 지난 9년간은 조선에서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중첩된 시기였다. 특히 공화국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다.

나라의 전진과 후퇴, 흥망성쇠가 판가름되는 시기에 그이께서 선택하신 유일무이한 투쟁방식이 바로 공격전이였다. 이것은 선대수령들께서 한평생 견지하여오신 공격방식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시려는 그이의 의지의 파시였다. 그 의지는 지난해 12월 선대수령들의 혁명업적과 사적이 많이 깃들어있는 백두산지구에로 단행하신 그이의 군마행군길에서 다시금 파시되었다.

그 의지로 분출된 그이의 열정은 나라의 전진동력이였고 그이의 담력은 국가의 존엄과 기상이였다. 나라의 최대열점지역들인 판문점초소와 오성산 까칠봉의 전호가 그리고 장재도와 무도의 섬방어대를 향해 사나운 난파를 헤가쁜 27hp목선 등은 이미 그이의 군령도의 나날에 표면화된 이름들이다.

국가의 존엄사수전, 인민의 운명수호전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견결히 맞받아나가는것, 그이의 령도방식의 이 특징은 나라의 경제건설에서도 발현되었다.

지난해 12월이 주목된다. 2일 산간도시의 표준으로 전변된 삼지연시의 준공, 3일 대규모의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조업, 4일 거창한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 준공, 7일 특색있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

경제건설에서 조건과 환경은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러나 그 인자는 절로 마련되지 않는다. 어려운 때일수록 자기 힘을 믿고 맞받아나가야 불리한 환경도 유리하게 전변시킬수 있다.

어느해 여름날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지난 두달 동안 현지지도한 단위가 공개된것만 하여도 60여 개가 넘는데 그야말로 장군님처럼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강행군을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앞서 언급된 중국의 김일교수는 《<조선중앙년감>에 수록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그이의 혁명활동일지를 통계해보면 2012년부터 차례로 121차, 176차, 147차, 137차, 161차, 112차이다. …여기에 비공개된 혁명활동차수를 합친다면 나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이의 현지지도를 두고 시인들이 《나라의

저녁문을 열려진 새벽문삼아》라고 표현했듯이 그이께서는 우리가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하게 된다고 일군들을 고무하시며 폭열파눈보라속에서도 자신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였다.

나라의 중요대상건설장들마다에서 자력자강의 열의드높이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기적들이 일어나는것, 마식령속도, 강원도정신, 려명신화와 같은 새로운 진군속도가 창조되는것 역시 그이의 공격정신의 구현으로 보아진다.

공격이 승리를 앞당긴다면 신념은 공격속도를 배가해준다는 말이 있다.

그이의 공격정신은 선대수령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바탕을 두고있고 당과 사상도 뜻도 발걸음도 함께 하는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뿌리를 두고있다.

그이께서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다음호에 계속)

본사기자 흥정혁

력사인물

동물화가

변상벽은 18세기 중엽에 초상화와 동물화에서 이름을 떨친 재능있는 화가이다.

그는 도화서 화원이였으며 한때는 꼭성현감의 벼슬도 지냈다.

궁중에서 량반판료들의 초상을 주로 그렸는데 그 수가 수백 점에 달한다고 한다.

그는 동물화도 잘 그렸는데 고양이와 개, 어미닭과 병아리

등에 대한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사람과 동물들사이의 다감한 생활정서를 표현하였다.

그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묘사, 섬세하고도 치밀한 채색기법으로 뛰여난 재능을 발휘함으로써 개성이 명확하고 형상이 생동한 초상화와 동물화를 남기였다.

《윤금의 화상》과 《한쌍의 고양이》, 《어미닭과 병아리

리》, 《개》 등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특히 고양이를 잘 그렸는데 사람들은 그에게 《변고양이》, 초상그림의 명수라고 하여 《국수》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그는 당대의 사실주의적경향의 회화창작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 * *

첫삽에 실린 무게

지난 3월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의 명당자리에서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이 진행되어 세인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온 세계가 신형코로나비루스의 전파로 아우성치고있을 때 조선에서는 인민들의 건강을 위한 종합병원건설에 착수하였다.

실로 놀라운 일이였다.

더우기 파문을 일으킨것은 그 착공식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참가하시여 착공의 첫삽을 뜨시고 연설로 건설자들을 고무격려해주신것이다.

그 첫삽은 참으로 그 무게를 헤아릴수 없는것이라고 볼수 있다.

돌이켜보면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한 길에 한 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길을 걸으시였다.

그 걸음마다에서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인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류경안파종합병원, 류경치파병원 등 대중의료봉사기지들이 련이어 건설되여 인민들이 좋아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으실때면 누구보다도 기뻐하신 그이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나에게는 장군님께서 맡기고하신 우리 인민이 장군님의 영상으로 안겨온다고, 나는 장군님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일을 잘해나가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늘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는것처럼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려는것이 인민에 대한 그이의 멸사복무의 관점과 립장이다.

바로 이런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셨기에 그이께서는 양덕지구에 인민을 위한 온천휴양지건설을 발기하시고 비내리는 궂은날, 이른새벽 가림없이 험한 건설현장을 찾고 또 찾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온천물을 날라다 그것이 실지로 인민들의 건강과 치료에 얼마나 이바지되겠는가하는 연구도 해보시였다.

준공을 앞두었을 때에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는 당이 인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 새로운 문화정서생활기지들로 안겨주기 위해 건설하는 온천치료봉사기지이며 다기능화된 복합체육문화휴식기지라고, 사소한 부족점도 허용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온천문화휴양지의 완공과 그 운영관리에서 나서는 세부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휴양지가 다 완공되었을 때에는 양덕온천이 명실공히 인민들이 문명을 마음껏 누리는 곳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뿐이 아니다.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 일떠선 현대문명이 응축된 하나의 리상도시 삼지연시, 북면의 동해기슭 중평지구에 일떠선 대규모의 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등 여러곳에도 그이의 인민사랑의 로고와 심혈이 깃들어있다.

이런 인민관을 지니시였기에 그이께서는 평양종합병원건설 착공식에 참석하시여 먼저 인민을 위한 더없이 숭고한 무게가 실린 첫삽을 박으시였던것이다.

세상사람들은 해마다 날마다 일떠서는 창조물 하나하나에서 인민은 사회주의의 뿌리이고 지반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증하고있으며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말을 다시 한번 읊미해보고있다.

에스빠냐의 어느 한 인사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세상에 국민을 위한다는 지도자들은 많지만 김정은원수님같으신 인민의 어버이는 그 어디에도 없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을 하늘로 여기신다. 그이의 하루하루는 인민의 아들로서의 헌신의 나날이였고 그이의 로고는 인민의 행복으로 이어졌다. 인민으로 시작되어 인민으로 일관된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력사의 순간과도 같은 짧은 기간에 인민을 위한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시고도 오히려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새롭게 가다듬으시는 그이의 혁명한 령도에 의해 조국의 존엄은 날로 높아지고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은 우후죽순처럼 솟아날것이다.

본사기자 엄향십

상봉, 평화의 흐름

오늘도 세상사람들은 세기적인 사변들이 련속적으로 펼쳐졌던 주체107(2018)년의 충격을 잊지 못해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조미수뇌회담은 세인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어떤분인가 하는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한 계기로 되었다.

조미수뇌회담전까지만 해도 조선반도에는 전쟁발발직전의 팽팽한 분위기가 항시적으로 떠돌고 있었다. 이를 두고 세계의 정세분석가들과 군사분야의 연구기관들은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으며 특히 조선이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한 시점에서 전쟁이 터질 경우 피해는 참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평하였다. 그들의 평대로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은 세계평화를 깨뜨리고 전지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가져올 수 있었다.

하지만 새해의 첫아침이 밝아오는 것과 함께 긴장한 정세에 대한 우려는 순간에 경탄과 환희로 바뀌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7(2018)년 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대법하고 통이 큰 제안을 내놓으시였던 것이다.

그에 따라 2차에 걸치는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는 극적인 사변이 련이어 일어나게 되었다.

조선반도에 평화의 분위기를 마련하신 그이께서는 뿌리깊은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끝장낼 결단을 내리시고 싱가포르로 향하시였으며 미국의 트럼프대통령과 직접 만나 회담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회담석상에서 오늘 여기까지 와닿는 과정이 결코 험난한 경로였다고 하시면서 파거의 역사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그릇된 편견들과 판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파감하게 짓밟고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왔으며 새로 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이의 평화의지는 이렇듯 확고부동한 것이다.

그이의 평화의지를 직접 알게 된 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만난 것은 자신의 영광이라며 그이에 대해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실천적인 사업도 주도적으로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두 나라사이에 존

재하고 있는 뿌리깊은 불신과 적대감으로부터 많은 문제가 산생되었다고 하시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양국이 서로에 대한 이해심을 가지고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며 이를 담보하는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지역과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당면해서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회담기간 트럼프는 여러번 염지손가락을 거듭 내흔들면서 《멋진 분》, 《최고》라고 하면서 찬양하였고 함께 걸을 때면 앞서가시라고 양보하였으며 특급비밀인 자기의 전용차내부까지 보여드리는 이례적인 모습도 보이였다.

세계는 이러한 조미수뇌상봉을 목격하면서 그이의 위인상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국제사회에서는 《세계외교사에 전례없는 일》, 《전세계를 들었다놓았다.》, 《2018년 6월 12일은 세계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세상사람들은 김정은각하께서 지니신 천재적인 예지와 영도의 현명성에 탄복하였다.》 등의 격찬이 끝없이 울려나왔다.

뿐만 아니라 미국집권자가 《김정은위원장은 위대한 인격을 갖춘 뛰어나고 훌륭한 협상가, 굉장히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조국을 매우 사랑하시는 분》, 《매우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초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인 그가 김정은위원장은 그토록 최대의례우로 대한 것은 그이께서 세계정치계의 거장이심을 확고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에서는 부쉬행정부시기의 고위관리들 속에서도 김정은령도자는 세계가 보란듯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흐름을 주도해 가시는 뛰어난 전략가이시라는 찬탄이 련속 나왔다.

이렇듯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을 통하여 국제사회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에 완전히 매혹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실천적인 사업도 주도적으로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두 나라사이에 존

회말이 깊은 여운

력사적인 제1차 조미수뇌회담이 끝난 후 국제사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일화들이 수없이 생겨났다.

영국잡지의 평

영국잡지 《에코노미스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존함 마지막글자를 조선말발 음 그대로인 《Un》이 아니라 《Won》으로 바꾸어 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세계언론들은 《에코노미스트》, 김정은위원장의 존함에서 영문자 <Un>을 <승리했다>라는 뜻인 <Won>으로 썼다. 《이번 조미회담의 승자는 트럼프가 아니라 김정은위원장이시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평하였다.

평화에 대한 기대감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서쪽끝에 자리 잡고 있는 요새의 포문들과 그 주변이 회담을 앞두고 화려한 꽃들로 단장되어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한다.

요새는 1800년대 후반기 싱가포르를 점령하였던 영국군대가 섬을 드나드는 선박들을 감시하기 위해 건설한 것으로서 당시의 물건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현재 군사박물관 겸 관광지로 리용되고 있다.

센토사개발공사는 이 섬에서 진행되는 조미수뇌회담이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기를 바라면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요새에 놓여 있는 60문의 대포들의 포문마다 꽃다발을 꽂아놓고 그 주변을 평화를 상징하는 감람나무 가지들로 장식하였다고 한다.

이것을 본 관광객들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번 회담이 조선반도뿐 아니라 세계평화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였으면 좋겠다.》고 자기들의 소감을 터놓았으며 언론들은 《싱가포르에서 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조선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하였다.

이례적인 친절성

트럼프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악수를 나눌 때 자기의 고질적인 악습까지 버리고 친절한 행동을 한 것이 외인들의 특보감으로 되였다.

세계언론들은 《트럼프가 외국수반들과 악수를 할 때마다 상대방이 당황스러울 만큼 손을 꽉 잡거나 잡아당기는 악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이번 회담전부터 그것이 초점으로 되었으나 예상외로 김정은위원장과 아주 상냥하게 악수를 하였다. 가볍게 손을 잡고 쓰다듬는 전례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김정은위원장과 환담과정에 웃으며 또다시 악수를 하였다.

본사기자 김지성

위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트럼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김정은위원장에게 몸으로 증명해주었다. 악명 높은 <트럼프식 악수>도 돌출 행동도 전혀 없었다.》라고 하였다.

5년만에 증명된 주장

2년전 6월 12일 새벽 싱가포르에 도착한 미국 NBA(전국농구협회) 이전 선수 데니스 로드맨이 회담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주목을 끌었다.

로드맨은 회견에서 5년전 조선을 방문하고 공개한 긍정적인 발언때문에 미국에 돌아와 여태껏 살해협박에 시달렸고 집에도 갈수가 없었다고 당시의 심정을 이야기하며 울먹이였다.

그러다가 《오늘은 정말 위대한 날이다. 나는 이런 날이 올줄 알았다. 이 모습을 보기 위해 내가 여기까지 왔고 너무 행복하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끝내 눈물을 터치고야 말았다.

세계언론들은 《로드맨이 역사적인 조미수뇌회담성사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의 이번 상봉으로 그동안 자기의 주장이 사실이였음을 증명한셈이다.》 등으로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김지성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사진 김성칠

무장에는 무장으로

(진호에서 계속)

우리는 1931년 12월 중순경에 명월구에서 당 및 공청간부회의를 소집하였다. 우리가 편의상 《겨울명월구회의》라고 부르는 회의였다.

이 회의에는 차광수, 리광, 채수항, 김일환, 랑성룡, 오빈, 오중화, 오중성, 구봉운, 김철, 김중권, 리청산, 김일룡, 김정룡, 한일팡, 김해산을 비롯하여 혼신적인 투쟁을 통해서 대중의 총애와 인망을 받고있던 40여명의 청년투사들이 참가하였다.

그때 나는 명월구에서 영채김치라는것을 처음으로 먹어보았다. 내가 명월구뒤풀안에 도착한 날 저녁 리청산이네가 당콩을 넣은 강냉이죽과 영채김치를 들여왔는데 그것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른다. 영채김치는 함경북도의 길주, 명천사람들이 잘 담근다. 지금은 이 김치가 국가연회상에도 오르고있다.

명월구회의때 리광이 어디서인가 꿩 다섯마리를 잡아 가지고 왔다. 회의를 하는 동안 대표들이 강낭죽에 조밥만 먹는것이 가슴아파서 공청열성자들과 함께 꿩사냥을 한것 같았다.

그날 저녁 리청산은 좋은 꾸미감이 생겼다고 하면서 국수를 눌렀다. 명월구골안에 흰쌀은 귀했지만 농마가루는 있었다.

그런데 국수라면 오금을 뜯쓰는 차광수가 덜렁거리면서 리광에게 《이것 보라구, 왕청아즈바이. 꿩 다섯마리를 가지고야 어느 쪽에 바르겠나.》하고 집적거리였다. 그는 위탈이 심하여 끼니때면 밥을 먹는등 하면서도 청년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늘 허기증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대식가연하였다.

《저 길립량반은 강낭죽 한사발도 못 제끼는 주제에 큰소리만 탕탕 치는군. 이보라구 차덜렁이, 그 꿩 다섯마리두 쌀짐우에 덧지고 오느라구 녹초가 됐네.》

리광은 웃으면서 차광수의 말에 롱으로 대답하였다.

차광수는 꿩 다섯마리면 고기가 얼마 되지 않으므로 대표들을 두방에 가르고 한방에서는 꿩고기를 놓은 국수를 먹게 하고 다른 한방에서

는 닭고기를 놓은 국수를 먹게 하자고 열이 나서 떠들었다.

그러나 대표들은 모두 그의 제의를 반대하였다. 우리는 그날 저녁 꿩고기와 닭고기를 한데 섞어서 꾸미를 만들게 하고 한방에 다같이 모여 앉아 사이좋게 국수를 먹었다. 식성이 좋은 박훈은 세그릇이나 끔배기를 하여 《국수대감》이라는 별명을 벌었다.

회의를 실속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본회의에 앞서 리청산의 집에서 예비회의를 하였다. 그 모임에서는 회의안건과 회의참가자, 회의순서문제 등이 토의되었다.

예비회의를 끝낸 다음 10일동안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무장투쟁을 하되 어떤 형식의 무장투쟁을 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락착되어야 무장조직의 형식과 근거지의 형태문제 같은 이여의 문제점들이 동시에 결정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국가가 없으니 정규군에 의한 항쟁은 바랄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여 당장 전민이 동원되어 무장봉기를 일으킬수 있는 조건도 성숙되지 못하였다. 이런 형편에서 나의 마음은 자연히 유격전으로 끌리지 않을수 없었다.

레닌은 유격전을 대중운동이 이미 실지로 폭동에 이르렀을 때나 또는 국내전쟁에서 대전투와 대전투사이에 얼마간 중간기가 닥쳐오고있을 때 불가피적으로 나타나는 보조적인 투쟁형태로 규정하였다. 레닌이 유격전을 기본전투형태로 보지 않고 일시적이며 보조적인 투쟁형태로 본데 대하여 나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흥미를 가지고 탐구에 탐구를 거듭한것은 정규전이 아니라 유격전이였기때문이다.

나는 상비적인 혁명무력에 의한 유격전을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무장투쟁의 기본형식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투쟁형태가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하겠는가 적합치 않겠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많은 생각을 하여보았다. 그 과정에 《손자병법》도 보고 《삼국지》도 다시 보았다. 우리나라의 병서들 가운데서는 《동국병감》이나 《병학지남》과 같은것을 보았다.

유격전의 시원이 기원 400년대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유격전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진행되였는가 하는것을 우리로서는 알 도리가 없었다.

맑스와 엥겔스가 제일 흥미를 가지고 연구한 유격전은 1812년 로불전쟁시기의 로씨야농민무장부대의 활동이였다. 로불전쟁이 낳은 빨찌산 영웅 제니쓰 다위도브, 정규부대와 빨찌산의 협작전을 능숙하게 지휘한 꾸뚜조브장군의 이야기는 유격전으로 풀리는 나의 호기심을 더욱 부채질해주었다.

유격전을 기본형식으로 규정하는데 있어서 임진조국전쟁은 나에게 많은것을 시사해주었다. 나는 임진조국전쟁을 승리로 장식한 의병들의 투쟁을 유격전의 역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하나의 모범이라고 간주하였다. 꽝재우, 신돌석, 김응서, 정문부, 서산대사 그리고 최익현, 류린석 등 의병출신 명장들이 발휘한 용감성과 다양한 전투방법은 나를 완전히 매혹시키였다. 유격전이라는 말은 발톱까지 무장한 일본제국주의자들과의 대전을 눈앞에 둔 나의 심혼을 온통 틀어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이 있어야만 유격전을 할수 있다고 하니 야단이였다. 맑스-레닌주의고전가들이 명시해놓은 이런 부대조건은 나로 하여금 무장투쟁형태를 선택하는데서 복잡한 탐구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후방으로 될 국가도 없고 정규군도 없는 조선의 실정에서도 유격전이 가능하겠는가 하는것은 그 누구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미지수로 남아있었다. 이것이 우리들사이에서는 심각한 론쟁거리로 되었다.

우리 주변에서는 혁명을 추동하는 극적인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장개석과 장학량의 투항주의에 불만을 품은 구동북군의 애국적인 장병들속에서 병변이 연이어 일어났다. 왕덕림도 당취오도 리두도 장학량을 따라가지 않고 모두 반변하여 구동북군에서 떨어져나왔다. 마침산과 같은 장군도 병변을 일으킨 다음 무장을 들고 항일을 부르짖고있었다. 이런 인물들을 주축으로 하여 만주각지에서 반일부대들이 조직되고 구국군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런 사태는 무장투쟁을 지향하고있는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을 지어주었다.

나는 무장투쟁형태 가운데는 역사적으로 정규

전과 유격전이 있었는데 정규전은 주도적인것이였으나 유격전은 보조적인것이였다는것, 우리는 이 두가지 형태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택하여야 하는데 나 개인의 견해로 볼 때에는 유격전이 우리나라 실정에 더 적합할것 같다는것, 정규전이 불가능한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는 기존판례에 구애됨이 없이 유격전이 주도적인 투쟁형태로 되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변화무쌍한 유격전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본무장투쟁형식이다. 국가가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정규전으로 일제와 대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군사기술적으로나 양적으로 혈등한 무력으로 강대한 일제침략군과 맞서 싸워야 하는것만큼 변화무쌍한 유격전을 해야 한다. 이외에 다른 출로란 있을수 없다.』

장학량의 군벌군대나 독립군이나 일본군대밖에 보지 못한 청년들한테는 유격대에 대한 표상이 전혀 없었다.

나는 정규군과 유격대의 차이를 설명하여주고 강대한 일본침략군과 싸워이기자면 소부대와 대부대의 령활한 배합작전, 기습전, 매복전, 정치활동, 정치공작, 생산활동 등 군사, 정치, 경제활동을 다 벌려야 하며 그러자면 자유자재로 분산과 집중을 거듭하면서 전쟁을 할수 있는 유격대를 조직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몇몇 동무들이 나의 말을 듣고나서 그런 형식의 무장투쟁으로 적을 타승할수 있겠는가, 땅크와 대포, 비행기와 같은 현대적인 정예무기로 장비된 수백만대군을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그것도 남의 나라 땅토에서 유격대와 같은 비정규적인 무력으로 이겨낼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표시하였다.

그들이 그런 의문을 표시하는것은 무리가 아니였다.

내 자신도 사실 그런 가능성여부를 여러번 저울질해보았다.

우리가 몇자루의 총을 가지고 일본과 같은 군사강국에 감히 대항해나선다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의병도 독립군도 장학량의 30만대군도 모두 일본군대의 위력앞에서 풍전등화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그들을 타승하려고 하는가, 우리에게 국권이 있는가, 땅토가 있는가, 재부가 있는가?

(다음호에 계속)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를 열어주시여

력사적인 6. 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된 때로부터 20년세월이 흘렀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시간의 흐름앞에서는 모든것이 퇴색하고 조락한다.

허나 6. 15통일시대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에 남긴 자욱은 참으로 크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밀에 북남사이에 상급회담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의 대화와 접촉,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경제와 문화, 체육 등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벌어졌다.

두텁게 열어붙었던 분별의 장벽에 파열구를 내며 하늘길, 땅길, 바다길로 북과 남이 서로 오가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해나가는 장쾌한 사연들이 일어났다.

통일운동사에 기록된 이 모든 경이적인 사변들은 숭고한 민족애와 확고부동한 통일의지를 지니신 위대한領導자 김정일장군님의領導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기어이 안겨주실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 세기가 밟아오는 주체89(2000)년에 북남수뇌상봉으로 조국통일위업실현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실 통이 큰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그이의領導에 의하여 분렬사상 처음으로 평양에서는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었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훈풍이 온 강산을 휘감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에 처음으로 오는 김대중대통령일행을 위해 친히 평양비행장(당시)에 나가시여 따뜻이 맞아주시였고 수십리연도우에 환영의 꽃물결을 펼쳐주시여 통일을 바라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염원을 그대로 보여주도록 하시였다.

그뿐만이 아니였다. 그이께서는 김대중대통령일행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그의 건강을 염려하여 팔걸이의 자도 준비하도록 하시고 대통령과 부

인이 한식탁에 앉도록 따뜻이 배려해주시는 등 북남수뇌상봉 전기간 뜨거운 동포애와 넓은 포옹력으로 대통령일행과 남녘겨레를 크게 감동시키시였다.

선언문내용과 관련하여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의 뜻이 맥박치는 선언문이 되도록 사색과 정열을 다 바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대중대통령에게 지난 시기 북과 남사이에 이미 합의한 좋은 문건들이 많지만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리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는것, 이번에 내놓는 문건은 2000년에 들어선것 만큼 온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락관을 주는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우리는 이번에 지난 시기의 유물을 털어버리고 원칙은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희망적인 문건을 내놓아야 한다고,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 민족끼리》를 공동의 리념으로 하여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한다는것을 천명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6. 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됨으로써 새 세기 자주통일의 리정표, 평화번영을 위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 마련되게 되였다.

불과 55시간이라는 짧은 평양상봉의 나날에 6. 15북남공동선언이라는 통일의 리정표를 펼쳐준 이 경이적인 사변은 해내외 전체 조선민족의 가슴마다에 통일열기를 더해주었다.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를 타고 조국땅우에 《우리 민족끼리》의 합성이 메아리쳤고 《반갑습니다》의 노래가 백두산에서 한나산으로 퍼져갔다.

우리 민족은 둘로 갈라져서는 못살 하나의 유기체라는 확신이 삼천리에 새겨졌다.

진정 이 땅우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안아온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 15북남공동선언이 있어 우리 민족은 한괴줄을 나눈 한겨레임을 더욱더 절감하게 되였다.

본사기자

일화

흔연일체의 당으로

주체53(1964)년 6월 19일은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그이께서 당을 흔연일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던 나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대중의 호령을 받아야 한다

어느해 정월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이며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다 인민을 위한것으로 일관되어있다고 하시였다. 그러면서 당일군들은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에게서 배우며 군중과 고락을 같이하는것을 습성화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가장 큰 영예와 보람으로 여겨야 한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시여 당일군은 대중에게 호령할것이 아니라 대중의 호령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고 인민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는 일군이라야 참다운 당일군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는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가 있는데 당일군들의 구호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구호에는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힘있는 존재로 숭배하신 그이의 인민관이 집대성되어 있다.

밀거름과 열매

주체62(1973)년 5월 어느날 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과의 사업에서 아직도 부족점이 나타나고있는 원인을 두고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그이께서는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책임지고있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사업방법을 깊이 연구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일군들이 옳은 사업방법과領導예술을 체득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 혁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나가는 희생정신을 가지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일군의 노력은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은 마치 땅속에서 곡식을 자래워주는 밀거름과 같기때문이라고, 밀거름은 땅속에 깊이 묻혀야 곡식이 잘 자라서 알찬 열매를 맺을수 있다고, 이와 마찬가지로 당일군들은 무슨 일에서나 자기의 얼굴을 내밀려고 하지 말고 군중속에 깊이 파묻혀 그들과 어울리면서 행정경제일군들의 사업을 실속있게 뒤받침해주고 적극 떠밀어주어야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교시는 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의 좌우명을 깨우쳐주는 지침이였다.

* * *

상식

된장, 간장, 고추장은 우리의 민족음식이다.

예로부터 선조들은 된장을 그대로 먹거나 국을 끓일 때, 간장은 음식물의 간을 맞추는데, 고추장은 입맛을 돋구기 위해 썼다.

된장, 간장, 고추장은 다같이 콩을 기본원료로 하고있다.

된장은 고조선의 령역에서 수천년 전부터 만들어져 리용되어왔다.

간장은 언제부터 만들었는가 하는

민족을 식-장

옛날에는 집들에서 제각기 장을 담그어먹었으므로 장맛에 따라 그 집 너인들의 음식솜씨가 본의되었다고 한다.

한편 땅을 시집보내려면 장담그는 법부터 배워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있다.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된장, 간장, 고추장은 그 가공기술이 부단히 발전되어 오늘날 공업적 방법으로 다량생산되고있다.

* * *

삼지연시 남새온실농장



삼지연지구는 토지와 날씨 등 남새를 재배 할 수 있는 조건이 좋지 못하다.

지난해 삼지연시의 남새온실농장이 확장 현대화되어 인민들에게 갖가지 남새를 사철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부지면적이 근 19정보에 달하는 농장에는 80개의 온실호동이 있다. 호동들에서는 오이, 도마도, 배추, 무우를 비롯한 갖가지 남새들이 생산되고 있다. 그 어느 호동이라 할 것 없이 각종 열매남새들과 잎남새들이 키운다. 농장에서는 선진적인 남새재배 기술과 방

법을 받아들여 수확고를 높이며 영양가와 생산성이 높은 품종을 육종하고 종자를 개량,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내밀고 있다.

지배인 리호송은 《지금까지 여러차례 남새를 수확하여 시안의 주민들에게 공급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다른 지방에서 대부분의 남새를 날라다 먹던 주민들이 이제는 제 고장에서 나는 남새를 먹게 되었다고 좋아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 평





국제인명사전에 오른 학자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김남철교원은 어느 한 나라의 잡지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잡지에는 지난 세기 90년대에 일부 나라들에서 첨단기술분야의 하나인 량자정보학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량자암호통신기술개발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자료가 실려 있었다.

자료를 읽을수록 그는 세계적인 량자정보학, 량자암호통신기술의 발전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량자암호통신기술만 보아도 량자물리학의 기묘한 특성들을 정보처리기술에 적용하여 통신에서 도청의 흔적을 탐지하고 원리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하게 하는 첨단기술로서 시급히 개발해야 할 연구과제였다. 그러나 당시까지 만 해도 우리 나라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대담하게 이 연구개발에 달라붙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갓 교원생활을 시작한 그에게 있어서 연구는 아름찬것이었지만 그는 먼저 량자정보학의 어려운 초행길을 헤쳐나갔다.

그는 량자물리학의 원리들을 하나하나 터득하고 체계화하는 한편 정보과학리론과 방법들을 깊이있게 연구분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결합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량자정보학의 첫문을 열었다.

당시 그가 발표한 논문 《량자상태조종 및 량자측정에 대한 정보리론적고찰》은 국내학계의 파문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는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였다.

그는 기초연구에 토대하여 량자암호통신기술개발에 달라붙었다.

이 기술개발의 기초는 량자물리학의 기본원리와 레이자빛의 량자화기술, 빛분할 및 빛합성기

술, 송수신기에서의 신호조종기술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깊은 지식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연구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입장에서 량자정보학의 기초적이며 원리적인 문제들을 다시금 파악하는 한편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꾸준히 학습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그는 연구방향을 정하고 심화시키였다. 이와 함께 필요한 모든 회로를 설계, 제작하기 위한 연구와 조종프로그램개발사업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그러자니 품이 꽉질 들었고 실패도 거듭되었다. 그때마다 그의 가슴에 고개친것은 과학자이기 전에 애국자가 되여야 한다는 말의 참뜻이였다. 그것은 그에게 힘겨워도 어떤 정신과 의지를 가지고 난관을 이겨내야 하는가를 말없이 가르쳐 주었고 정신적인 힘으로 되였다.

그와 연구성원들은 수십번의 실험을 거듭하여 마침내 우리 식의 량자암호통신기술을 내놓게 되였다.

그들은 남들이 오랜 기간 이루한 성과를 짧은 기간에 달성하였으며 량자정보학과 량자암호통신기술분야에서 조국이 선진수준에 올라서게 하였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그의 량심파 의무, 그로부터의 열정과 헌신이 놀라운 성과를 가져온것이다.

량자정보학의 실력가, 교수 박사인 그는 주체107(2018)년 나라의 최우수과학자, 기술자로 등록되었다. 그리고 권위있는 국제학술잡지들에 수십건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국제학술토론회에도 참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여러 국제학술잡지사의 논문심사자, 편집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체107(2018)년 국제인명사전에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로 선정되었다.

본사기자 강경수

늘어나는 새 《식솔》

올해에 들어와 중앙동물원의 선물동물들이 련이어 후대를 남기고 있다.

늘어난 새 《식솔》들중에는 볼수염검은얼굴원숭이, 사자돌원숭이, 흄볼트펭귄의 새끼들도 있다.

올해 2월에 새끼를 낳은 볼수염검은얼굴원숭이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주체97(2008)년 1월 10일 쿠웨이트동물원에서 선물로 올린 한쌍의 동물이다.

원래 수단파 에티오피아의 열대초원이나 산기슭에서 사는 볼수염검은얼굴원숭이는 인공사육조건에서 번식시키기 힘든 동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주변환경변화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 원숭이는 적합한 조건과 환경이 보장되지 못하면 새끼를 낳을 때 죽거나 류산되는 데로 대단히 높다.

이곳 중앙동물원의 일군들과 기술자, 관리공들은 이에 맞게 볼수염검은얼굴원숭이의 생리적특성을 연구한데 이어 번식성공을 위한 환경조건과 영양개선대책을 하나하나 세워나갔다.

이들의 피타는 사색과 탐구는 번식에서의 성공을 가져왔다.

볼수염검은얼굴원숭이는 중앙동물원에 보금자리를 편 후 이번까지 다섯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이곳 일군의 말에 의하면 낳을 당시 새끼의 몸무게는 350g이였고 현재 발육상태는 정상이다.

경애하는 최고령 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주체102



사자돌원숭이

(2013)년 8월 5일 로씨야의 한 인사가 삼가 올린 흄볼트펭귄도 식솔이 늘었다.

지난해 12월 알들을 낳은 때로부터 수십일이 지난 1월 14일과 18일에 새끼들이 까나왔다. 당시 새끼들의 몸무게는 90g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흄볼트펭귄의 세배째 새끼들이다. 하여 중앙동물원의 흄볼트펭귄은 9마리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주체99(2010)년 3월 22일 쿠웨이트동물원에서 올린 사자돌원숭이도 자기의 후대를 남기였다.

낳을 당시 새끼의 몸무게는 900g정도이고 현재 잘 자라고 있다.

갈수록 새 《식솔》들이 늘어나는 중앙동물원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빛만,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성영

흄볼트펭귄



도안 창작가들



조선산업미술창작사에서는 최근년간 각종 도안들을 민족적특성과 시대적미감에 맞게 련이어 내놓았다.

건축물들의 외부와 내부, 공장들의 기관명 표식물도안창작에서 두각을 보인 김철웅, 유명혁도안가들은 룬전기재도안창작에서도 재능을 발휘하였다.

착상이 기발하고 조형화능력이 높은 김철웅 도안가는 궤도전차, 지하전동차, 무역짐배형태

들의 주장이다. 큼직큼직한 건축물들과 룬전기재도안창작은 주로 남자도안가들의 전문이라면 상징적이면서도 재치를 요구하는 광고와 상표, 간판도안창작은 여성도안가들의 뜻인듯 하다.

상업도안단의 고은성실장은 여성도안가들이 섬세하고 깔끔하며 미적감각이 좋은 여성특유의 장점을 도안창작에 잘 살려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속에는 비반복적이고 특색있는 도안창작으로 이름난 최향미도안가도 있다. 그

도안들을 창작하였고 미적감각이 좋은 유명혁도안가는 궤도부설렬차형태 도안을 비롯한 여러 도안들을 창작하였다. 이들이 창작한 도안들은 현대감파 세련미가 두드러진것이 특징이다. 대상에 대한 깊은 지식에 착상을 결합시킬 때에만 명도안이 나오게 된다는것이 이

의 특기는 도안에서 글씨체를 독특하게 형상하는것이다. 그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야외온천장알림판의 《석탕온천》이라는 글을 형상할 때 종전의 관례에서 벗어나 새롭게 형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직접 붓으로 한 획한획 써가면서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환경과 어울리는 독특한 글씨체를 창작해냈다. 이렇게 형상된 《석탕온천》이라는 글은 간판도안창작에서 독특하고 조형적이면서도 완전히 새로운것으로 평가되었다.

김류경도안가는 어떤 주제의 산업미술도안이든지 명도안으로 완성하여 내놓는다재다능한 도안가로 알려져있다. 그가 창작한 삼지연시에 새로 일떠선 봉사망들의 내부광고 도안들은 간결성, 집중성, 상징성이 보장되었을뿐아니라 산간도시의 특성이 살아나게 조형예술적으로 잘 형상한것으로 하여 호평을 받았다. 그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봉사망들에 전시할 화장품, 의상을 비롯한 여러 광고도안들도 특색있게 형상하였다.

그들만이 아니다. 감자를 재치있게 의인화하여 형상한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의 마크도안을 창작한 김진순실장, 박사휘장도안을 비롯하여 여러 마크도안을 창작한 정순희실장을 비롯한 많은 여성도안가들이 명도안들을 내놓았다.



지금 창작사의 도안가들은 대상의 특성과 가치를 몇 안되는 표현요소들에 집약시킬 줄 아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이들은 하나의 도안을 창작하기 위해 수십번의 모의를 거듭한다. 글자, 색, 선, 상징물과 같은 표현요소들을 조화시키면서 대상의 특성을 정확히 나타낼수 있는 리상적인 도안을 얻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끝이 없다.

이렇게 창작되는 하나하나의 도안들에는 인민의 생활을 더욱 아름답고 문명하게 하려는 이들의 소중한 마음이 깃들어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학생소년들의 과외소조활동

언제인가 로씨야 모스크바주에 살고있는 김유리동포는 조국의 학생소년들의 예술공연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어쩌면 나이도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곱게 추는지 무대우로 올라가 그들을 꼭 껴안아주고싶었다. 정말 인상적인 공연이였다.』

동포가 감탄한 학생들의 재능은 과외소조활동과정에 꽂혀난것이다.

평양시의 모란봉구역 진흥초급중학교는 학생들이 과외활동을 잘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악과 무용소조를 잘 운영하고있다.

안순혁교장은 최근에만도 소질과 희망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소조들에 망라되였다고 한다.

성악소조에서는 주로 민요와 함께 악기와 무용률동도 배합하여 배워주고있었다.

소조원들은 수업이 끝나면 소조에서 무용률동 훈련을 진행하여 육체를 유연하게 하는 한편 피로도 털어버린다. 그리고 성악연습을 하다가도 소조운영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악기연습에 전념한다.

2학년 2반 학생 김주건은 『성악과 함께 악기와 무용률동을 배우느라 힘은 들지만 그 과정에 성격이 쾌

활해지며 노래형상도 잘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여러가지 악기와 무용률동의 배합으로 일정하게 다정다감한 정서와 형상능력을 갖춘 학생들은 성악의 기초교육을 원리적으로 받고있다.

호흡이 약하여 음정이 불안정한 학생들은 그것을 퇴치하기 위한 과학적인 훈련을 하고있는가 하면 다른 소조원들은 인상을 밝게 하고 입을 곱게 벌리는 연습도 한다.

자기의 재능을 꽂파우는 학생들의 모습은 무용소조에서도 볼수 있다.

소조지도교원인 김성희는 풍부한 경험과 묘리를 가지고 소조원들의 무용교육을 알기 쉽게, 재미있게 하고있다.

그의 지도속에 무용이 무엇인지 모르던 1학년의 학생들도 무용의 기초동작들을 빨리 습득하고 팔과 다리, 시선을 정확히 결합시켜나간다. 2학년 학생들은 벌써 민족적인 춤가락을 비롯한 적지 않은 춤동작들을 소유하였으며 그것을 자



연스러우면서도 곱게 펼쳐보이고있다.

놀라운것은 3학년 학생들이 난도높은 춤동작들을 손색없이 하고있는것이다.

『운동감각과 육체적조건 등이 다른 조건에서 학생들의 발전과정은 다르게 나타난다. 그에 맞게 매 학생들의 우점을 평가하고 약점들은 집중적인 훈련과정을 통해 시정해주고있다.』라고 성희교원은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소조원들이 무용작품들을 완성하는 과정 역시 그들의 능력을 제고하고 성과를 넓게 하는 좋은 계기로 되고있다고 하였다.

실지 소조원들은 자기들의 땀방울이 어린 무용작품을 가지고 제53차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 무용부문에서 1등을 쟁취하였으며 그후 새로운 작품들로 지금까지 5연승을 쟁취하였다. 그리고 해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되는 설맞이공연에 참가하였으며 주체105(2016)년 6월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조선소년단창립 70돐경축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에도 참가하였다.

교장 안순혁은 『과외소조활동은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해줄뿐만아니라 학생들의 천성과 소질을 적극 찾아내어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서 매우 유익하며 그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로 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주체109(2020)년 1월 촬영

그 맛이 시고 매운 생강은 예로부터 음식의 맛을 돋구는 재료로뿐 아니라 약재로도 널리 쓰이였다.

생강은 인체의 로쇠를 방지한다. 또한 감기와 구토, 류마チ스, 허

리와 다리아픔이 있을 때 생강을 달인 물을 마시고 뚝 자면 몸이 거뜬해지고 병증상이 없어진다.

여행을 할 때 멀미를 막는데도 효능이 있다. 차를 타기 전에 생강즙

상식

효능 높은 생강

을 마시거나 손목의 내관혈에 생강한조각을 붙이고있으면 멀미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생강을 정상적으로 섭취하면 담

석증도 예방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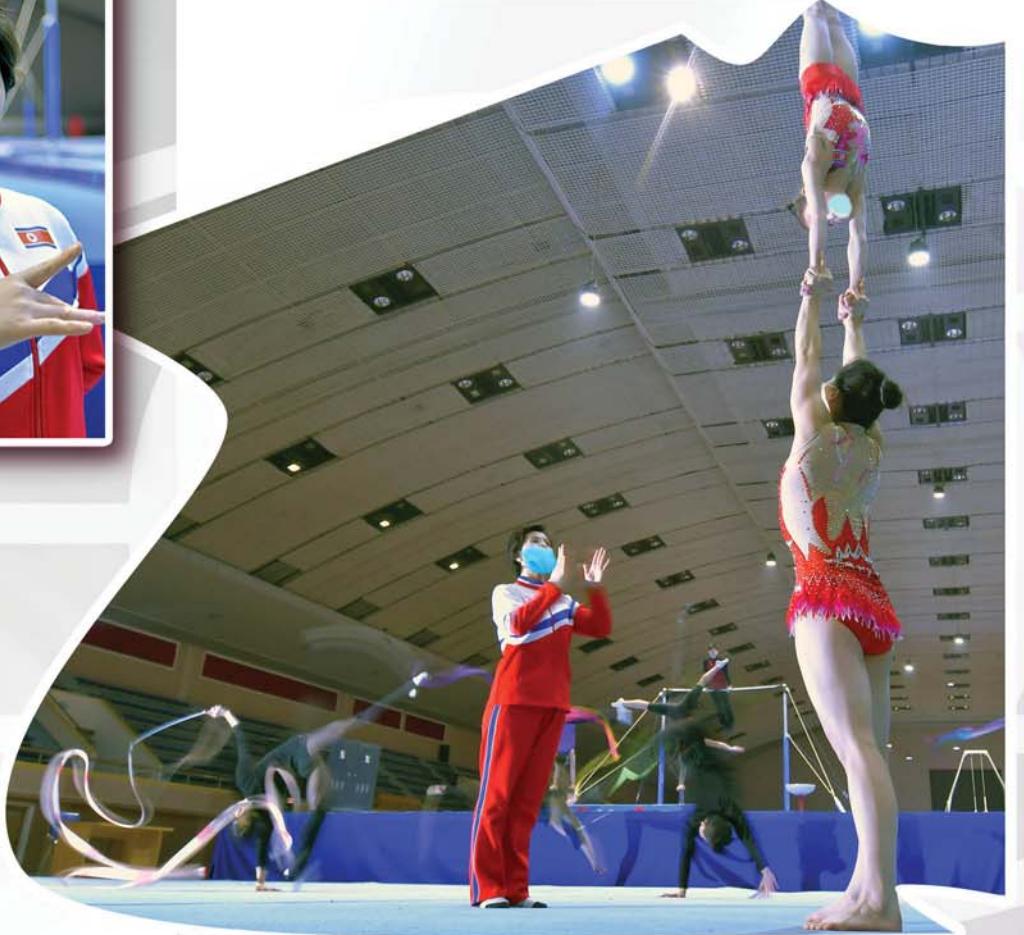
이밖에 기침이 나고 가래가 생기거나 목구멍이 부었을 때, 헉가 아플 때, 메스꺼울 때 생강즙을 마시면 효과적이다.

생강잎을 목욕물에 넣고 몸을 씻으면 특간신경통과 좌골신경통치료에서 효과를 볼수 있다.

* * *



4연승을 안아온 감독



주체107(2018)년 제26차 국제체조련맹 세계교예체조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너자체조선수들의 경기모습은 많은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국제체조련맹 교예체조기술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에 조선의 체조선수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 세계교예체조계를 깜짝 놀래웠다. 조선선수들이 아시아의 기술위력을 세계의 면전에서 과시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 조선선수들의 정열적이며 강의한 모습에서 조선사람들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세계교예체조계의 이 찬양은 선수들의 경기성과만이 아닌 감독의 노력에 대한 말없는 평가이기도 하였다.

조국의 교예체조를 우승의 단상에 올려세운 감독, 그가 바로 상업성체육단 교예체조감독 강금화이다.

그가 조선체육대학을 졸업하고 교예체조감독으로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7년전이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은 몸이 체조하고 성격도 내성적인 그가 감독사업을 꽤 해낼 수 있겠는가고 우려를 감추지 못하였다.

허나 선수들에 대한 엄격한 요구성과 열정에 넘친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었다.

한때 교예체조선수로서 국제 및 국내경기들에서 50여개의 메달을 쟁취하였던 그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훈련계획을 세우고 완강히 실천해나갔다.

그가 선차적으로 힘을 넣은 것은 60만개나 되는 교예체조

동작들 가운데서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는 기술기교동작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과학연구기관들을 찾아다녔고 최신체육과학기술자료들을 연구하느라 많은 밤을 지새우기도 한 그였다. 마침내 그는 선수들의 체형에 맞는 다양한 연결기교동작들을 찾아내게 되였고 선수들의 기술수준도 날로 높아지게 되였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기성적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제8차 아시아교예체조선수권 대회와 제9차 아시아교예체조선수권대회 성인급 녀자2인조형경기에서 강금화감독과 선수들은 련이어 우승을 쟁취하였다.

그러나 그의 감독사업에 우승이라는 글자만 새겨진 것은 아니였다.

제25차 국제체조련맹 세계교예체조선수권대회에서 그가 담당한 선수들이 만회할 수 없는 실수를 하였던 것이다.

선수들의 훈련지도에 기울인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되였던 것이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의 실패는 그에게 있어서 커다란 충격으로 되였다.

(내가 너무 자만한 것은 아닌지, 경기에서 실패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리에서 떠날 줄 몰랐다.

사실 교예체조는 유럽에서 발생한 것으로 하여 세계교예체조무대는 의연히 유럽선수들의 마당으로 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담당한 선수들도 심리적으로 유럽선수들의 경기위세에 위축되어 경기장에

서 자기들의 실력을 당당히 발휘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확실히 기술실무에만 빠져 선수들의 정신력을 분발시키기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한 그의 결함이였다.

경기결과에 대한 분석과 마음 속총화는 그를 분발케 하였다.

그는 선수들이 우리도 능히 유럽선수들을 앞설 수 있다는 배짱과 신심을 가지고 훈련의 중점을 두었다.

『조국이 우리를 지켜본다.』,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 …

훈련장에 울리는 그의 목소리는 선수들을 높은 목표에로 이끄는 추동력으로 되였다.

몸펴 뒤로 허공돌며 옆으로 900° 방향바꾸어 밀선수의 허리에 끼웠다가 련속하여 뒤로 허리굽혀 2회전허공돌기동작을 비롯한 세계적인 특기동작들이 완성되었고 매 선수들의 예술적기량과 호상협동도 날이 갈 때 따라 좋아졌다. 그 과정에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느끼던 하던 심리적 압박현상도 점차 없어지게 되였다.

우승의 신심을 안고 제10차 아시아교예체조선수권대회에 진출한 강금화감독과 선수들은 결승경기에서 맞다른 다른 나라의 선수들을 높은 점수차이로 누르고 단연 1등을 쟁취하였으며 제11차 아시아교예체조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하였다.

4연승을 안아온 강금화감독.

그는 공훈체육인으로서 두번에 걸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감독으로 선정되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우리의 생활

《너》와 《나》란 부름보다 《우리》라는 말을 더 즐겨쓰며 정파 덕으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사는 조국인민들의 생활의 단면들을 소개하고 한다.

이름은 《대학생》

지난 1월초 평양호텔주변의 지하건늠길에서였다.

계단을 오르던 한 로인이 갑자기 발을 헛디디며 그 자리에 풀썩 꼬꾸라졌다. 앞서 걸던 중년의 너인과 두 청년(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 윤승호, 송대남)이 급히 되돌아섰다.

집주소를 물은 너인은 서둘러 로인의 집으로 달렸고 두 청년은 무작정 로인을 등에 업고 가까이에 있는 중구역인민병원으로 향하였다. 때는 추운 겨울이였던지라 청년들은 자기들의 덧옷까지 벗어 로인에게 써워주었다.

반시간쯤 흘렀을가, 로인의 가족들이 병원 구급과에 들어섰다. 그려는 그들에게 의료일군은 안심을 시키며 두 청년의 소행을 이야기해주었다.

얼마후 치료를 받은 로인이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청년들이 집문앞에서 로인을 맞이하며 방금 구한 구급약을 내놓았다.

《할머니의 병치료에 써주십시오.》

로인의 가족들은 두 청년의 손목을 잡고 어디서 사는 누구들인지 거듭 물었으나 그들은 《대학생》이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이상한 《다툼》

얼마전 강원도 원산시 관영동을 지날 때였다. 한 로인과 중년의 너인이 무엇인가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다투고있었다. 이례적인 모습이여서 우리가 다가가보니 그들의 손에서는 한벌의 옷이 오가고있었다.

사연인즉 강원도상품주문봉사사업소에서 일하는 그 너인(박성심)은 로인(전쟁로병 박룡덕)이

주문한 옷을 가져다주면서 자기가 따로 마련한 옷을 더 가져다준것이다.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주문한 상품들을 집에까지 가져다주는것만도 고마운데 전쟁로병이라고 하여 각별히 마음을 써주는 그 너인의 마음을 로인은 《나무람》하는 것이였다.

알고보니 박성심녀인은 지난 시기 맡은 일을 잘할뿐아니라 10여년간 인민군대에 대한 원호와 나라의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대한 지원을 잘하여 많은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진 혁신자, 미풍선구자였다. 최근년간에는 여가시간마다 원산시 중해초급중학교 3학년에서 공부하는 딸(홍금복)과 함께 은방울꽃, 배도라지 등을 심고 가꾸어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보내주었다고 한다.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여러 대회들에 대표로 참가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었다는 어머니와 딸, 그들의 모습이 무척 돋보였다.

《내가 이 아들의 어머니요!》

얼마전 혜산청년역에서였다.

렬차가 도착하자 한 청년이 렬차안내원의 부축을 받으며 승강대에서 내렸다. 한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가슴에는 영예군인(군사복무기간 부상을 입고 제대된 사람)메달을 달고...

앞 못 보는 영예군인의 어머니는 그가 제대되기 며칠전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영예군인을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었으니 그는 혜산시 혜홍동에서 살고있는 김룡숙녀성이였다.

영예군인이 렬차에서 내리자 《어머니》는 그의 지팡이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일렀다.

《어서 이 어미등에 업혀라!》

나라를 지키는 길에 청춘을 바친 《아들》이 그리도 장하여 너인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렬차원에게 말을 곱씹었다.

《내가 이 아들의 어머니요!》

본사기자 홍정혁

《백학》치과위생용품들

평양치파위생용품공장에서 생산되는 《백학》치파위생용품이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특히 뾰뿌라항균치약과 질산칼리움항지각파민치약, 피린산치약, 홍곡색소치약, 알로에즙치약들은 치과질병치료와 예방에서 효과가 뚜렷 할뿐만아니라 여러가지 기능들이 첨부된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널리 리용되고있다.

이밖에도 각종 형태의 치파위생도구들과 알클록사, 클로르헥시딘성분이 들어간 함수액과 입가심물약들도 매우 실용적이다.

예로부터 사람들속에 오복의 하나로 알려진 건



강한 이발, 이를 《백학》치파위생용품이 도모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성영

《나래》제품들

깨끗한 흙과 물을 이용하여 만든 《나래》위생자기와 도자기제품들.

환경오염이 없는 이 톡색제품들은 선명하고 다양한 색도와 친근감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형태, 독특한 장식수법들과 사용의 편리성으로 하여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특히 국내최우수제품들에 수여하는 12월 15일 품질메달을 받은 위생자기들은 제품의 방사선방출량이 안전수치보

다 현저히 적고 백색도와 광택도 등이 좋으며 물질약형인것으로 하여 사용자들의 인기를 모으고있다.

목란꽃부각무늬화분, 립식주름화분을 비롯한 다양한 화분들도 수요가 높다.

이 제품들은 평양시 형제산구역에 위치한 나래도자기공장에서 생산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슬기





중국 베이징시 창평구 통달원 4-1-501 배인순고모 앞

보고싶은 고모님에게

고모님,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저의 어머님은 건강한 몸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도 다 무고합니다.

제가 고모님께 편지를 들고 첫 편지를 부친 때로 부터 20여년이 지나갔지만 이번처럼 잡지 《금수강산》에 실어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인지 정말 가슴이 설레입니다.

잡지 《금수강산》은 해외에 사는 동포들을 위하여 조국에서 발간되는 잡지입니다.

지금 고모님도 보다싶이 이 잡지에는 매 호마다 편지란에 해외에 사는 친척들에게 보내는 글을 실습니다.

얼마전 저는 고모님이 보낸 편지를 받고서 회답편지를 써놓았는데 뜻밖에도 이런 기회가 생겼으니 정말 기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 편지에서 고모님께 전할 새 소식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해구누이가 새로 일떠선 과학자주택지구의 살림집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배정받은 것입니다. 누이네 집 살림방은 세칸이 모두 남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리파대학 함흥분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해구누이는 아름다운 연풍호기슭에 자리잡은 과학자휴양소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였을뿐아니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국가적인 대회에 참가하여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었습니다.

해구누이의 아들 렘청송이는 올해 25살인데

상봉때를 자주 회상하고 합니다.



리파대학 함흥분교 박사원생입니다. 그 애는 어머니처럼 과학으로 나라를 빛내일 열의에 넘쳐 시간을 조개가며 공부를 잘하고있습니다.

청송이뿐아니라 저의 딸 선미도 과학자가 될 꿈을 안고 이악하게 공부하여 올해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함흥화학공업대학에서 연구소 실장으로 일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대학생들만 보면 모두 내 딸, 내 아들같아 대견하고 사랑스러웠는데 자식도 그들처럼 어엿하게 자라났으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선미가 돈 한푼 내지 않고 12년제의무교육을 받으며 마음껏 공부하고 이제는 대학교정에서 과학의 세계를 점령해나가기 위해 지식의 탑을 높이 쌓아가게 된 이 기쁨과 사랑은 나라의 은덕을 떠나서 도저히 생각할수 없습니다.

참, 대학입학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말이지 고모의 손녀 한지연이와 손주 한지근이도 대학에 입학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대글에서 대가 난다고 아무렴 중국에서도 한다하는 과학자인 고모부의 피줄을 이어받은 자손들이 어려하겠습니까.

지금 저의 어머니는 일전에 고모가 보낸 편지를 늘 머리맡에 두고 읽고 또 읽습니다.

어머니는 고모가 15년전에 고모부와 함께 조국에 오셨을 때가 엊그제같다고 하시며 고모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소녀시절부터 어머니와 고모는 한동네 아래웃집에서 살면서 다정하게 지냈다지요? 그러니 지난온 70여년세월에 쌓아두었던 추억을 같이 나누고싶어하는 로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제 저의 어머님도 고모님도 85살이 되었습니다.

부디 고모님께서 건강에 류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모님, 누이와 저에게 편지때마다 조국의 과학자답게 지식으로써 부강한 조국건설에 이바지 하라고 늘 강조하군 하던 그 당부를 잊지 않고 언제나 자기 사업을 더 잘해나가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함흥시 회상구역 세거리동 3인민반 5층 1호 배성일조카 올립

《정말 몰랐습니다》

평양초등학원 학생들인 김진성, 류송은 아동문학영예상수상자들이다.

아동문학영예상은 조선소년 단창립절을 맞으며 전국적범위에서 문예작품현상옹모를 진행하여 최우수문학작품을 창작한 학생들에게 주는 상이다.

이상을 김진성은 3년전에,



창작한 작품을 동무들앞에서 랑송하는 류송

류송은 지난해에 받았다.

이들이 쓴 작품은 일기글들이다. 일기글이 1등으로 당선된것으로 하여 많은 문학애호가들과 전문가들의 호기심을 자아냈다.

학원을 찾는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도 진성이와 류송에게 1등상을 받은것이 사실인가고 질문하였다 한다.

그때마다 그들의 대답은 하나였다.

《우리 생활을 그대로 썼을뿐인데 그것이 1등으로 평가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알고보니 김진성학생과 류송학생은 평양애육원시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만나뵈온 어린이들이였다.



선생님과 함께 있는 김진성

한자 써내려갔다.

주체103(2014)년 2월 애육원에 찾아오시여 아버지의 정을 부어주신 이야기며 그해 국제아동절을 원아들과 함께 보내신 사실, 주체104(2015)년 설날에도 자기들과 한 약속을 지켜 제일먼저 찾아주신 이야기...

부모의 정을 그리워하는 자녀들에게 아빠정, 엄마정 다 안겨주신 그이는 원아들의 아버지이라고,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고싶다고 감정을 토로하였다.

그리고는 제목을 《세상에 부럽없어라》라고 달았다.

류송학생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일기글 《자장가소리》도 그렇게 창작된것이였다.

그는 철없던 시절에 다 몰랐던 나라의 고마움을 평양초등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칠따라 새옷과 새 신발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모든 필수품

언진산의 주인들

들이 고급한것으로 안겨지고 맛좋고 영양가높은것이 먼저 자기들에게 차례지는것을 보면서 그리고 학원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께서 글씨를 곱게 쓴다고 자기의 머리를 그토록 쓰다듬어주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뵈오면서 자기들을 포근히 감싼 무한대한 사랑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그의 꾸밈없는 진실한 감정은 그대로 일기장으로 옮겨졌다.

이들의 일기를 본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최성희는 『어린이들의 눈물은 천사의 눈물이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거짓도 가식도 없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우리는 원아들의 작품에서 어린 가슴에 자리잡은 진실하고도 순결한 마음을 읽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의의있는것을 발견할 줄 아는 문학적재능을 가진 이들의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하였다.

몸도 마음도 자라는 나날 김진성학생은 학원 소년단위원장, 류송학생은 소년단부위원장으로 선거되어 소년단원들의 모범이 되고있다.

앞으로의 희망을 묻는 기자에게 진성이는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비행사가, 류송은 교원이 되겠다고 하였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주체108(2019)년 10월 촬영

얼마전 우리는 황해북도 언산군의 홀동광산을 취재하는 과정에 이곳에서 실습을 하는 사리원지질대학 학생 라권일의 글을 보게 되였다.

『할아버지(라윤출)는 가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해방전에는 광산에 틀고앉은 일본의 아리까경영주의 착취속에 오소리굴같은데서 매일 16시간이상 광석을 캤지만 30전짜리 전표 한장이 품삯의 전부였다. 그들이 20년동안 땅 탈해간 금만 하여도 60여t이 된다. 나라가 해방되어서야 이 고장사람들은 언진산의 주인이 되였다. …』

알고보니 그 대학생의 고향인 광산마을-홀동구에 대한 이야기였다. 수백년전부터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력대왕들이 금산개발어명을 적은 홀폐를 자주 내려보내여 그 이름도 홀동이라 불리운다는 이곳은 일본도쿄도 최병태동포의 고향이기도 하여 우리는 홀동구의 모습을 렌즈에 담기로 하였다.

듣던바 그대로 홀동광산마을은 언진산의 줄기가 빙 둘러 솟아있는 기슭에 위치하고있었다. 임진조국전쟁시기(1592년-1598년) 피난가던 왕실이 은신해있었다는 실래골이며 홀골, 남산골, 대명골 등마다에는 색

색의 소총살림집들과 편의봉사 건물들이 아담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그 대학생의 글에 의하면 이 집들은 이 고장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창조물이였다. 한 것은 거듭되는 자연재해와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책동으로 하여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기 이곳 노동자들은 힘을 모아 광산의 설비들을 재가동시켰고 이악하게 고향을 변모시키였다. 돌산으로 불리우던 언진산에 소나무, 잣나무, 사파나무 등을 심고 밭에 돌부리만 걸리던 좁은 길들이 개진화장 되였다.

제 손으로 고향을 꾸려가려는 이들의 열기는 언진산을 감도는 홀동천의 흐름처럼 멈춤을 몰랐다.

회관과 광부자녀들을 위한 유치원, 탁아소, 아동공원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그런가 하면 광산의 보석갱, 언진갱, 남산갱의 주변마다에 남새온실과 버섯재배장, 토끼사를 꾸려놓았고 산들에 풀판을 조성하여 집집승

학에서 공부하면서 광산의 래일을 설계하고 문화회관에서는 보람찬 로동생활을 노래에 담아 구가하고있었다. 또한 남녀로소 할것없이 길섶의 나무 한그루, 공원의 풀 한포기에도 정성을 기울여 고향마을을 가꾸어



들을 기르는 축산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바다 면 산촌에 1 800여 m²의 양어장을 건설해놓고 여기에서만도 몸길이가 50~60cm나 되는 초어와 기념어, 화련어 등을 길러 물질적부를 계속 늘여가고있다.

우리는 이곳 사람들의 날로 높아가는 문명수준도 엿볼수 있었다. 작업이 끝나면 너나없이 과학기술보급실과 홀동공업대

가고있다.

정말 보고 듣는 모든것이 번쩍거리지는 않지만 이곳 사람들의 향토애가 슴배여있다.

고향을 떠난 동포들이 1세대라면 그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러 세대가 여러번 바뀌여 오늘은 3세, 4세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였다.

해외동포후손들도 선친들이 늘 말하던 고향을 그려보리라고 본다.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지난해 11월 광산로동자들을 위한 새 아파트들을 또다시 일떠세운데 이어 수백석의 문화

한 교육자의 긍지

어느날 리파대학 함흥분교 화학공정조종강좌 실에서는 마춘배교원과 젊은 교원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고갔다.

《어떻게 왔소? 빼스가 곧 떠날텐데… 나도 연 풍과학자휴양소로 휴양가는 동무들을 바래주려 정문앞에 나가려던 참이였소.》

그러자 젊은 교원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이도 적지 않으신 선생님께서 꼭 그려실것 같아 제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라며 웃음지었다.

《동무도 먼저 갔다온 교원들의 소감을 들어



공정조종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알겠지만 연풍과학자휴양소는 그야말로 우리 과학자들을 위해 국가가 마련해준 금방석이요. 휴양생활을 즐겁게 보내기 바라오.》

강좌실에서 그를 바래우고난 마춘배교원은 깊은 생각에 빠져들게 되였다.

연풍호기숙의 자연경치가 아름다워 명승지로서는 명당자리였던 그곳에 과학자들을 위한 휴양소가 손색없이 일떠서게 된데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무수히 깃들어있었다.

그이께서는 몇년전에 길아닌 길을 걸으시여 과학자들을 위한 휴양소건설부지를 직접 잡아주시고 건설을 지도하시여 그토록 훌륭히 꾸려주시고도 휴양생활을 하는 과학자들이 자그마한 불편

이 있을세라 구석구석 세심히 관심해주시였다.

2년전 7월, 그는 무더운 삼복철의 한때를 연풍과학자휴양소에서 꿈같이 보내였다.

매일 별식으로 식사를 하고 여러가지 운동과 유희 등을 즐기며 일파생활을 흘려보내느라니 해가 언제 뜨고 지는지, 보름이라는 휴양기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전혀 몰랐다.

마춘배교원은 70살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휴양생활기간 탁구며 바드민톤에서 당할 사람이 없었고 낚시질에서도 누구에게 짹지지 않았다.

이렇게 머리쉼을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본적이 없었던 그였다.

자신을 과학자로 키워 내세우고 보배처럼 아끼고 보살펴주는 조국의 사랑이 눈물겹도록 고마웠다.

(내가 아직도 일본땅에서 살고있다면 파연 나의 인생은 어떠하였을가?)

그는 이렇게 반문하며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오끼에서 태여나 10살되는 해에 부모형제와 함께 조국의 품에 안긴 후 과학자로 성장하던 나날들을 추억해보았다.

함흥시에서 고등중학교(당시)를 졸업한 그는 소원대로 함흥수리동력대학을 다니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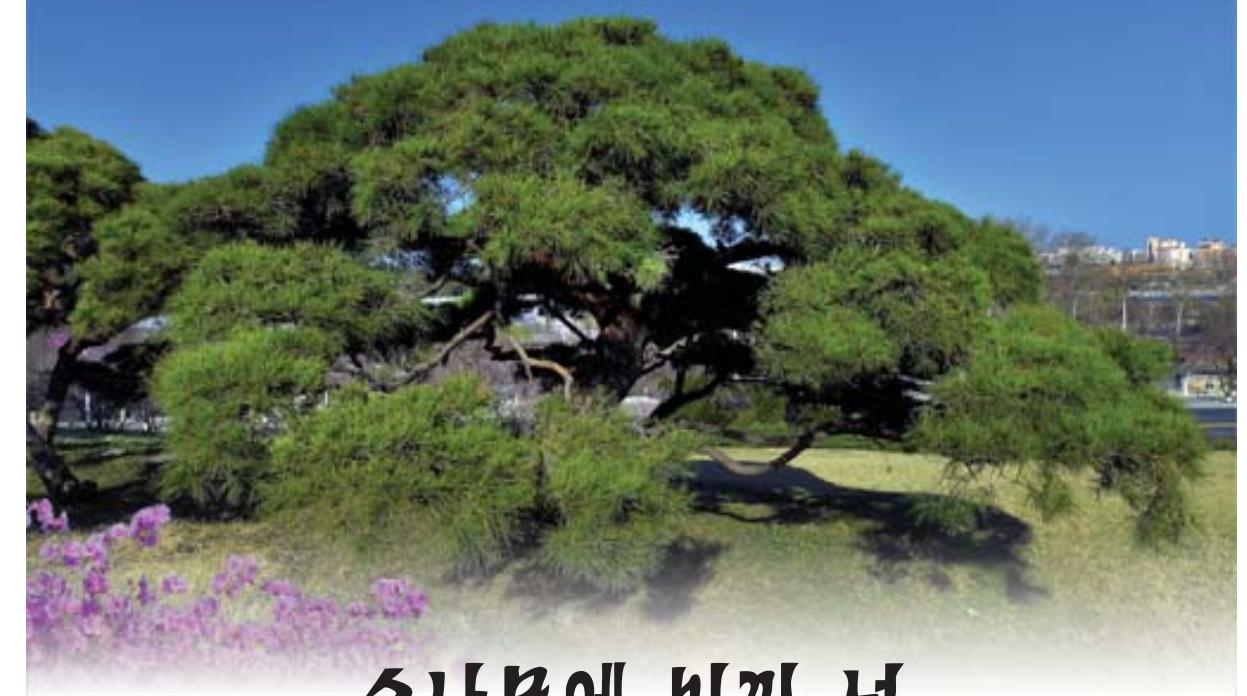
대학과정을 마친 후 그는 20년나마 과학연구 사업을 하여왔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가 일떠서던 1970년대 말 그를 비롯한 청년과학자들은 민족적자존심파 배짱을 안고 기술적우세를 뽑내며 엄청난 가격을 부르는 외국기술자들의 요구를 물리쳤다.

그들은 근 8개월동안에 거대한 화학련합기업 소조업과 관련한 핵심적인 기술적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였다.



마춘배



소나무에 비낀 넋

-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소장 교수 박사 공명성파 나눈 대담 -

기자: 옛글에 《소나무에서 소중히 여기였다. 솔잎만 보아 나서 소나무속에서 살다가 소나무속에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소나무에 각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공명성: 사철푸른 바늘잎키 나무인 소나무는 그 약용가치가 높아 일찌기 선조들은 소나무를

소나무가 섞인 바다가의 아름다운 경치)을 자연미의 전형으로, 유품가는 경치로 일컬었다.

선조들이 소나무를 특별히 사랑한것은 이것때문만이 아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푸른 소나무가 숲을 이룬 수려한 정경이나 백사청송(흰모래밭사이에

육사업에 여생을 깡그리 바쳐가고있는 그는 현대적인 과학자주택지구의 새 살림집도 국가로부터 배정받았다.

생각할수록 마춘배는 해놓은 일보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자기와 같은 과학자들을 금싸래기처럼 아껴주며 어디 가나 금방석에 앉혀주는 국가적시책에 가슴이 찌릿이 젖어들었다.

교육자로, 과학자로 한생을 보내온 궁지감이 그의 가슴을 부풀게 하였던 것이다.

그후 그는 자기의 과학연구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면서도 10년나마 2.8비날론련합기업소 염화비닐직장에서 제기되는 기술과제들을 수행하였다.

몇달전 그는 그 나날들에 연구하였던 기술자료들을 종합하여 박사론문을 제출함으로써 학계의 인정을 받았다.

주체102(2013)년 11월 마춘배교원은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다.

청춘의 활력을 안고 과학자후비를 키우는 교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 옥

되었다.

기자: 솔숲으로 우거진 그 자연의 경치들은 그대로 많은 미술작품에 읊겨졌다.

날아가던 새들이 벽에 그린 나무가 진짜인줄 알고 앉으려다가 부딪쳤다는 일화도 신라 시기의 화가 솔거가 그린 소나무와 관련되지 않는가.

공명성: 그렇다.

우리 인민의 민족문화유산 들 가운데는 소나무를 소재로 한 우수한 작품들이 많다.

그 가운데는 조선봉건왕조시 기 화가들이 리상좌와 리인문 의 그림 《달밤에 소나무 밑을 거닐며》, 《소나무 밑에서 물 소리 듣다》도 있다. 이밖에 16세기 말-17세기 초에 창작된 수예작품 《송학자수》 그리고 《소나무와 호랑이》, 《소나무와 꿩》을 비롯한 많은 명작 품들이 있다.

기자: 임진조국전쟁 시기 의 병장으로 싸운 사명당(1544년-1610년)은 전쟁의 불길 속에서도 끗 끗이 서 있는 한그루의 소나무를 보고 시 《청송사》를 써서 후세에 남기였다.

《송죽같은 절개》, 《겨울이 되여야 솔이 푸른줄 안다》와 같은 속담에도 있듯이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지켜싸울 애국의 마음을 주로 소나무의 모습에 비겨 노래하지 않았는가.

공명성: 옳은 말이다. 19세기 말 한 외국인도 자기의 저서에서 조선에서는 버들이 너성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의 상징이라면 소나무는 남자다운 힘의 상징으로 일러온다고 하면

서 소나무에 비껴있는 우리 민족의 정서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선조들이 소나무를 개인한 민족적 기상의 상징으로 내세운 것은 소나무가 사시장철 푸르며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소나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풍이 몰아칠 때나 고요할 때나 항상 자연파 잘 어울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민들은 순결하면서도 굳세게 살려는 지향과 정서를 소나무를 통해 소리높이 구가하였다. 해방전에는 일제 침략자들의 가혹한 폭압 속에서 눈속에서도 자기의 푸른 빛을 잃지 않는 소나무의 기상으로 민족의 절개를 굽힘 없이 끝까지 싸워 마침내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였다.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는 바로 이 소나무의 기상으로 지금은 적대 세력들의 책동 속에서도 혼들림 없이 자기의 길을 따라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 가고 있다.

기자: 소나무에는 우리 민족의 기상과 넋이 비껴있다고 볼 수 있다.

공명성: 옳다. 그래서 우리 인민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 없이 소나무를 정히 가꾸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풍습 그대로 명절이나 결혼식 날과 같은 의의 있는 날들에는 의례히 소나무를 심고 있다.

오늘날 소나무는 조선의 국수로 자기의 이름을 더욱 빛내이고 있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 주어 감사하다. ...

일제가 저지른 야만적인 범죄들 중에는 우리나라의 귀중한 민족 고전들을 수많이 소각해버린 죄악도 있다.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우리 인민의 애국정신을 담은 서적들에 대한 《조사》 놀음을 벌려놓고 수많은 도서를 압수 소각해버리였다.

일제는 1910년-1918년 1차로 《자료수집》의 명분을 내걸고 현병, 경찰, 관리들을 동원하여 전국 각지의 서원, 사찰, 향교, 서당 등에서 고전들을 강제로 수색 압수하였다.

일제는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민족 고전들을 말끔히 강탈하여 없애버리였다.

당시 조선총독 데라우찌는 《조선의 관습과 제반 제도 조사》라는 미명 하에 전국의 각 도, 군경찰서를 동원하여 력사책을 비롯한 각종 도서들을 대대적으로 압수하였으며 《대한 신지지》, 《을지문덕》 등 무려 20만여 권에 달하는 고전들을 불태워버렸다.

일제는 도서들을 불태우는데만 그치지 않고 력사책들을 숨겨두거나 몰래 읽는 조선 사람들을 까지 검거 투옥하였다.

당시의 한 출판물은 《합방 즉시 조선 력사를 적은 서적을 몰수하여 불무지에 던져버렸고 책방과 민가를 불문하고 조직적으로 가가호호를 대수색하여 우리 나라의 력사에 대한 것이 반폐지라도 있으면 반드시 불태워버리였으며 조선 력사책 한권을 숨겨둔 사람이 있어도 범죄시하였다.

오늘날 소나무는 조선의 국수로 자기의 이름을 더욱 빛내이고 있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 주어 감사하다. ...

일제의 고전 압수 소각책 동

조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력사책을 읽은 죄로 30일간 구금되거나 징역을 산것이 심히 많았다.」라고 일제의 서적 압수 소각과 검거 책동에 대하여 날이 폭로하였다.

애국적인 민들은 일제의 날로 우심해지는 책동 속에서도 력사책을 더욱 깊숙이 보관하고 탐독하였다.

일제는 조선 력사를 외곡 날조 할 목적으로 《조선사》 편찬이라는 흥책을 꾸미고 이를 구실로 민족 고전 압수 책동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일제는 1922년 12월에 《조선 총독부 훈령》 제64호로 《조선 사편찬위원회》를 조작해냈다.

또한 《조선사》를 편찬하면서 사료들을 강탈하기 위한 계획까지 세우고 추진시켜 나갔다.

1926년 12월에 사료수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낸 일제는 식민지 행정 및 군사, 경찰 까지 동원하여 강압적으로 수탈 할 수 있는 제도적 담보도 마련해놓았다.

일제는 교묘한 방법으로 조선 민족 고전들을 수많이 강탈하여 력사 외곡에 써먹을 자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없애버렸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우리 나라에서 쫓겨가면서 일제어 용사가들을 시켜 《조선 사편찬 회》 문서와 수많은 조선 사료들을

모두 불살라버리였다.

결국 일제의 민족 고전 소각 말살 행위로 하여 해방전 까지 우리 민족 고전들을 거의 나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일제의 고전 압수 소각책 동의 리면에는 외곡 날조된 저들의 책만 남겨놓아 조선인민의 민족적 자부심을 말살하고 조선 사람을 독하하였다.

애국적인 민들은 일제의 날로 우심해지는 책동 속에서도 력사책을 더욱 깊숙이 보관하고 탐독하였다.

일제는 1922년 12월에 《조선 총독부 훈령》 제64호로 《조선 사편찬위원회》를 조작해냈다.

또한 《조선사》를 편찬하면서 사료들을 강탈하기 위한 계획까지 세우고 추진시켜 나갔다.

1926년 12월에 사료수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낸 일제는 식민지 행정 및 군사, 경찰 까지 동원하여 강압적으로 수탈 할 수 있는 제도적 담보도 마련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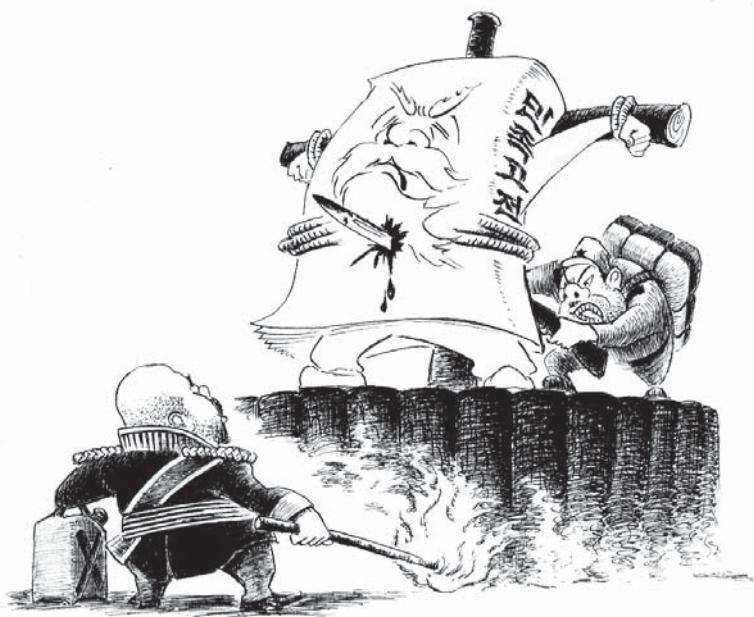
일제는 교묘한 방법으로 조선 민족 고전들을 수많이 강탈하여 력사 외곡에 써먹을 자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없애버렸다.

우리 나라의 애국적인 력사가였던 박은식은 자기의 저서에서 일본의 한 문학박사라는 자가 《조선사》가 남아있으면 일본이 조선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에 남아있게 되므로 조선사를 진멸하여 그 혼적을 일소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한데 대

하여 폭로하였다.

일제는 도서나 압수 소각하는 방법으로는 조선 력사를 없앨 수 없다고 하면서 조선인 동화를 위해서 저들의 비위에 맞는 새로운 력사책들을 만들어냈다.

력사에는 강점한 나라에서 도서들을 무차별적으로 소각한 침략자들에 대하여 적지 않



게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일제와 같이 한 민족의 넋과 민족성을 깡그리 말살하기 위해 력대로 내려오는 귀중한 민족 문화 유산들을 닥치는 대로 파괴, 강탈하고 불태우다 못해 력사마저 완전히 외곡 날조한 침략자

는 없었다.



강원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3)

- 금강산의 표훈사 -



표훈사는 강원도 금강군 내
금강리에 있는 절이다.

오래전부터 표훈사는 장안
사, 신계사, 유점사와 함께 금
강산 4대 절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다. 670년에 처음으로 세워
진 절은 신림사로 부르다가
3년 후 표훈사로 고쳐 불렀다.

절에는 본래 20여 채의 건물
이 있었으나 지금은 반야보전,
령산전, 명부전, 룡파루, 어
실각, 칠성각 등이 남아 있다.

반야보전과 극락전의 상량
문에 의하면 표훈사는 1682년
의 대화재와 1777년의 큰비로
피해를 입었다. 지금의 건물들

은 1778년에 다
시 지은 후 여러
차례 보수하면서
오늘에 이른 것들
이다.

중심 건물인 반
야보전은 화려한
건축장식과 세련
된 조각기교를 보
여주는 대표적인
건물의 하나로서



조국의 각 도 특산물을 (17)

함경남도의 특산 - 함흥갈비국

함경남도의 특산음식에는 함
비라는 뜻이다.

함흥갈비국은 소갈비국을 이
르는 말이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겨
울철이나 여름철에 뜨거운 소갈
비국을 먹는 것을 좋아하였다.

소고기국이나 소고기탕과 판
련한 역사기록은 1890년의 궁중
의례상차림과 관련한 책에 처음
소개되었으나 소갈비국을 비롯
한 소고기로 만든 음식은 이미
인민들 속에 널리 보급되었다.

소고기에는 단백질이 16~19%
가 들어 있다. 그밖에 기름, 칼
시움, 린, 철, 비타민A, B,
PP 등이 들어 있어 사람들의 영
양보충과 병치료에 매우 좋다.

함경남도에서는 갈비국을 가
리국이라고 하였는데 가리는 갈
진 함흥갈비국은

함경남도의 갈비국에서 이름
난 것은 함흥갈비국이다. 특히
애소갈비, 암소갈비로 만든 국
이 명물로 알려졌다.

만드는 방법을 보면 먼저 소
갈비의 기름과 막을 없앤다.

그리고 한대씩 갈라 적당한
크기로 토막낸 다음 양념에 반
시간정도 재운다.

남비에 소기름
을 두고 갈비를
일정한 정도 볶다
가 물을 두고 끓
인다.

남비의 고기가
푹 익으면 다시 양
념을 넣는다.

이렇게 만들어
진 함흥갈비국은

다른 지방에서 갈비를 삶은 후
한번 양념을 치는데 비해 맛이
좋다고 한다.

함흥갈비국은 오늘도 함경남
도의 특산음식으로 널리 이용
되고 있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사
김광조



유모아

술을 많이 마시면...

어느 한 식당에서였다.
한 사람이 술 한 병을 사 가지고 물을 타
서 마셨다. 그때 옆에서 술에 취해 고아대
던 여려 명의 젊은이들이 그의 모습을 보
고 크게 웃어댔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물만 마시면 병어리가 되오. 물속의
고기가 말 못하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지.
그런데 술을 많이 마시면 머저리가 되오.
당신들이 그걸 실증해 주고 있소. 나는 병
어리도 되기 싫고 머저리도 되지 않으려
고 술에 물을 타서 마시오!』

* * *

돌기단우에 세운 겹처마
합각집이다.

표훈사는 전반적으로
건물 전체의 균형이 잘
잡히고 굽직한 부재들을
써서 듬직한감을 주는 반
야보전은 조선봉건왕조후
기건축의 특색을 잘 나타
내고 있다.

릉파루는 2층루정으로
서 금단청을 한 겹처마합
각집이다.

령산전과 명부전, 어실

본사기자

평양의 대동강

어느 나라에서나 수도는 대체로 강을 끼고 있는 것처럼 평양에도 맑고 아름다운 대동강이 있다.

대동강은 탕림산에서 시작하여 평안남도와 평양시를 지나고 남포시와 황해북도, 황해남도 경계를 따라 흐르면서 조선서해로 흘러드는 우리 나라 6대 장강의 하나이다. 대동강으로는 성룡강, 비류강, 남강, 무진천, 보통강, 순화강, 황주천 등 크고 작은 강하천들이 흘러드는데 이러한 강하천들이 한데 모여 큰 강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 《대동강》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 나라의 옛 문헌들인 《고려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오늘의 대동강을 《愧수》, 《愧강》이라 하였고 《왕성강》이라고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愧수》는 넓은 벌로 흐르는 강이라는 뜻

을 나타내는 고대조선어 《부루나》의 리두표기이다. 왕성강의 《왕성》은 한자뜻 그대로 《왕이 있는 성》 즉 수도를 의미한다. 결국 왕성강은 수도의 강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평양을 고조선시기 선인 왕검이 살던 성이라 하여 《왕검성》이라고 부른 것과 련관시켜 볼 수 있다. 지난 시기 대동강은 평안남도 일부 지역에서 《뒤강》, 《료원강》, 《정웅강》(순강), 《한강수》라 하였고 평양시 강동군에서는 《서강》이라고도 불렀다. 대동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그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 봉이 김선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부자를 꿀려줄 목적으로 백성들에게 돈을 받고 대동강물을 팔아주는 척 하였다. 그에 구미가 부쩍 동한 그 부자는

김선달에게 많은 돈을 주고 대동강물을 샀다. 그 후 부자는 대동강에 나가 물장사를 시작하였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 장사를 망쳤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를 보면 현재 대동강한복판에 있는 통라도는 본래 평안남도 성천에 있던 섬인데 큰 물로 하루밤 사이에 떠내려왔다고 한다. 당시 성천부사는 해마다 평양에서 조세를 받아 가군 하였는데 하루는 통라도를 빨리 옮겨가라는 평양감사의 분부를 받게 되었다. 성천부사는 섬을 도로 성천으로 옮겨갈 재주는 없었으므로 부득이 통라도를 평양감사의 관할로 소속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통라도는 평양의 것으로 되었다고 한다.

대동강에서는 예로부터 민속놀이도 자주 진행되었다. 해마다 음력 6월이 오면 대동강에

서는 류두명절놀이가 있었는데 이 날 가정들에서는 국수를 만들어 먹고 대동강과 보통강에서 가막조개를 잡아 어죽을 쑤어먹었다. 그리고 음력으로 6월~7월이 되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대동강의 통라도와 양각도 등에서 목욕도 하고 해염도 치면서 놀았으며 서로 편을 갈라 물을 뿌리면서 승부를 가르는 물싸움도 벌려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였다.

오늘 대동강은 구슬같이 맑고 푸른 물을 풍만하게 담아싣고 흐르면서 마를 줄 모르는 젖줄기마냥 평양시에 음료수, 공업용수, 판매수를 대주고 있으며 하천운수에도 이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동강의 통라도와 양각도 등 여러 섬들이 인민의 문화휴식장소로 꾸려졌으며 한 폭의 그림 같은 그 모습은 수도 평양의 아름다운 풍경을 더욱 돋구어 주고 있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연구사 김광철



금강굴의 명안수

묘향산 금강굴 옆에는 큰 바위 밑에서 솟아오르는 수정같은 맑은 명안수(눈병에 특효가 있는 약수)라 불리우는 샘물이 있다. 이 샘물로 눈을 씻으면 맑던 눈도 금시 밝아지고 성한 눈은 수정같이 빛난다고 한다.

이 샘물에는 이러한 전설이 깃들어 있다.

향산골 아래마을에는 지주집에서 머슴을 사는 한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어둑새벽에 일어나 소여물을 끓이고 마당을 쓸며 낮에는 밭일을 하거나 나무를 해야 했고 또 밤에는 밤대로 새끼를 꼬아야 했다. 이렇게 온종일 고역에 시달리다가 밤이 깊어서야 소여물을 끓이는 혀간구석에서 쪽잠을 자곤 했다.

그러던 어느 해 봄부터 소년은 눈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는데 날이 감에 따라 눈병은 더 심해져서 검은 동자우에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주놈은 순간도 쉬지 못하게 했다.

이런 때 시주쌀을 받아가려고 중이 지주집에 왔다. 소년이 중에게 눈병을 고치는 약이 없는가고 물자 중은 절에 와서 부처에게 정성껏 빌면 눈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날부터 소년은 주인의 눈을 피해 가며 절에 가 부처에게 손이 닳도록 빌었다. 그런데 서너 달 빌었으나 눈병은 나날이 더해져 이제는 앞이 보이지 조차 않았다.

소년은 설음이 북받쳐 소리내여 울었다.

바로 이때였다. 전해 봄 나무하례 산에 갔다가 새알을 털어내려는 뱀을 때려죽이고 구원해준 등지의 어미새가 소년 앞에 나타났다.

새는 나무가지 위에 앉아 소년을 위로하듯 머리를 개웃거리며 구슬픈 소리로 지저귀더니 소년의 머리우를 서너번 감돌고 나서 앞에 날며 소년의 걸음을 재촉하는 것이였다.

소년을 이끌고 가던 파랑새는 돌머루덩굴과 이끼가 덮인 큰 바위앞에 내려앉아 바위짬에서 흘러떨어지는 샘물을 마시기도 하고 샘물에 머리와 눈을 적시기도 하였다.

소년은 새가 하는대로 샘물을 한 모금 마시고나서 그 물로 눈을 씻었다. 그랬더니 희뿌옇게 흐렸던 눈은 금시 밝아졌다.

소년이 머칠동안 여기로 와서 샘물을 마시기도 하고 눈을 씻기도 했더니 눈병은 깨끗이 가셨지고 다시금 눈은 새별처럼 반짝이게 되었다.

소년이 샘물로 눈병을 고쳤다는 소식은 삽시에 멀리까지 퍼져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되고 그 효과로 눈병을 치료하였다.

이때부터 이 샘물은 《명안수》로 불리우게 되었다고 한다.

살구는 《내과의사》

봄이면 흰색, 연분홍색의 꽃이 아름답고 여름이면 열매가 주렁져서 풍치를 아름답게 해주는 살구.

바로 이 살구가 여러가지 질병들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서 그 효능이 특이하기 때문에 일명 《내과의사》라고까지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호에서는 우리 조선민족의 생활과 살구에 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조선사람들은 집마당에 살구나무를 심고 가꾸어오면서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열매를 맛으로만 먹은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병치료와 예방에 이용하여왔습니다.

살구는 품종에 따라 둥글거나 둥글납작한 모양이며 굳은씨를 가진 열매입니다. 살구나무는 벚나무과에 속한 온대과일나무입니다.

조국의 각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살구종류는 회령백살구, 평양백살구, 감살구, 북청참살구, 물살구, 꿀살구, 고산살구, 큰참살구 등 수십종이나 되는데 다 꿋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흔한 살구속에 바로 사람이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 숨겨져있습니다.

그럼 그 비결에 대해 알기 전에 먼저 살구라는 말의 뜻부터 따져봅시다.

살구는 한자로 《죽일 살》자와 《개 구》자를 썼다고 합니다.

확실히 개에 물렸을 때 살구씨를 까서 먹으면 몸안에 들어온 독성물질이 제때에 제거됩니다.

민간에서는 이 파일이 《사람을 살군다.》는 의미에서 살구라고 불렀다고도 합니다.

살구가 사람을 살린다는것은 이 파일이 음식물의 독, 물의 독, 혈액의 독을 막는다는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15세기에 편찬된 고려의 학교전인 《의방류취》에는 말라리아 즉 학질에 걸렸을 때 살구씨로 치료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살구가 어떠한 병치료에 쓰이는가, 약으로 쓰는 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있습니다.

살구는 기침을 멎추고 가래를 삭이는 작용과 적

리나 콜레라를 제거하며 방사선피해도 막아줍니다. 살구는 체내에 생긴 여러가지 독을 체외로 제때에 내보내는데 그로 하여 몸안의 공해를 없애는 파일이라고 말할수 있는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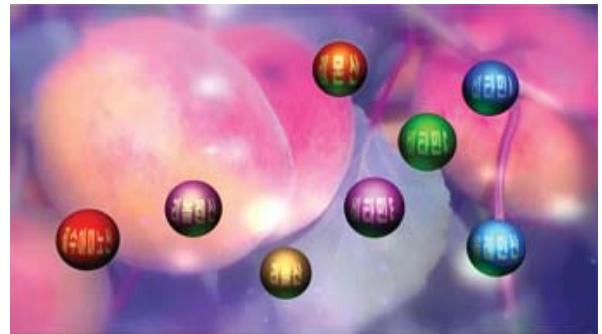
살구속에 들어있는 레몬산, 올레인산, 리놀산, 리놀렌산과 같은 물질들은 피를 맑게 하며 피부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있습니다.

살구열매에는 당분이 5~13%, 유기산 0.2~3.6%, 기름 1.1%, 페틴물질 0.7~1.32%, 비타민A 1.79mg, 비타민C 1.1~7.7mg 들어있으며 비타민B₁, B₂도 있습니다. 살구씨에는 기름이 30~55%, 단백질 25~31%, 섬유소 5%, 회분 3%정도가 포함되어있을뿐아니라 아미그달린이 들어있습니다.

살구는 생것으로 먹거나 말린파일, 통졸임, 단묵 등의 원료로 쓰이고있습니다.

오늘도 백살구로 유명한 화령시를 비롯하여 북부지역들에서는 김치를 담글 때 살구를 많이 이용하고있습니다.

함흥철도국체육단 의료연구사인 배경춘은 수십년간 살구연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집뜨락이나 가로수로 심은 살구나무보다 산에서 자란 야생살구나무열매의 약효가 더 크다는것을 밝혀냈습니다.



야생살구속에는 사람의 몸에 절실히 필요한 철과 같은 광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을뿐 아니라 희유금속인 금과 은도 미량으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여 지난 시기에는 《빛좋은 개살구》, 《빛좋은 산살구》라고 하며 도외시되던 야생살구가 이제는 기능성건강식품의 원료로 리용되어 《산살구도 맛들일탓》이라는 속담을 상기하게 됩니다.

앞으로 동포여러분도 《내과의사》인 살구를 자기의 생활속에서 더 많이 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본사기자 연 옥

사화

리순신장군과 로인

1597년 7월 초순의 어느날이였다.

한 어부로인이 철룡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리순신장군에게 찾아와 자기네 부자를 수군에 받아줄것을 청원하였다.

리순신은 젊은이는 받을수 있는데 로인이야 어떻게 군역을 감당해낼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수락하지 않았다. 로인은 한생 바다에서 살았으니 바다길에는 아직 젊은이들보다 낫다고 아뢰였다. 리순신은 부자의 애국충정이 기특하여 그들을 참군하도록 하였다.

당시 아군의 무력이라야 200여 명의 수군들과 싸움배 12척이 전부였다.

리순신은 한동안 적파의 정면

대결을 피하기 위해 벽파진으로 진지를 짚기는것과 함께 수군의 힘을 키워나갔다.

이때로부터 한달가량이 지나서였다. 리순신은 적선이 남해로부터 서해쪽으로 침공해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달가량 수군들이 훈련도 했고 무기와 식량도 어느 정도 마련했으나 10여 척의 배로 수백척의 배를 막아낸다는것은 너무도 아름찬 일이였다. 리순신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불현듯 그의 머리속에는 울돌목(명량해협)물속에 쇠사슬을 늘리고 왜적의 배들을 모조리 끌어들이고는 셀물에 배들이 떠내려갈 때 쇠사슬에 걸려 뒤집히게 할 생각이 떠올랐다. 울돌해협은 적들이 서해로 나오려

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이였다. 이곳의 물흐름을 리용하고 쇠사슬을 늘리면 능히 적을 소멸할수 있을것 같았다. 그런데 확신이 가지 않아 리순신은 모대기고있었다.

이때 어부로인이 찾아왔다. 로인은 리순신에게 왜적을 막아낼 생각이 떠올라서 아뢰려고 왔다고 말했다. 리순신과 마주앉은 로인은 울돌목을 막으면 능히 적은 수로 많은 배들과 싸울수 있다고 말하였다.

리순신의 눈은 빛났다. 하지만 자기 구상을 확증하기 위해 모르는척 하고 다시 물었다.

로인은 밀물때를 맞추어서 왜적들의 배를 끌어들이면 셀물때는 밀려서 갈팡질팡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리순신이 배들이 그냥 도망치지 않겠는가고 물자로 인은 울돌목의 물살이 너무 빠르기때문에 그곳에서는 배를 멈추지 못할줄로 안다고 아뢰였다.

그러면서 울돌목물속에 쇠사슬을 늘여놓으면 왜적배들이 다 뒤집히고 만다고 말하였다.

리순신은 희색이 만면하여 로인의 손목을 짙 쥐고는 이제부터 옆에서 자기를 도우라고 말하였다.

이튿날 리순신은 로인에게 명하여 근처에 있는 고기배들을 모두 모아오게 했다. 그리고는 그 고기배들을 마치 싸움배처럼 위장시켜 수군의 배뒤에 배치하여 놓았고 철룡이에게는 백성들과 함께 해협의 연안을 지키다가 륙지로 올라오는 왜적들을 몰살시킬 파업을 주었다.

그리고 막료들에게 울돌목에 쇠사슬을 늘이도록 하였다. 셀물이 시작되자 적의 배들은 조수에 밀리여 서로 부딪치

전투는 리순신장군이 직접 울돌목에 나가서 지휘하기로 했다. 리순신은 10여척의 배들을 고기배앞으로 나가 있게 했다. 그러니 멀리서 보면 조선수군의 위력이 굉장히 보였다.

9월 16일 아침 드디어 330여 척의 적선이 최대만조기의 순류를 따라 조선수군이 배치되어 있는 울돌목으로 침공해왔다.

리순신의 출동명령에 따라 함선 12척이 일자형으로 진을 쳤다. 적들은 전선수가 적은것을 보고 포위진을 치면서 공격해왔다. 리순신의 지휘하에 각종 총통과 포들이 적선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조선수군이 의례히 도망치리라 생각하면서 무방비상태에 있던 적의 지휘선은 잠간사이에 불덩어리로 되었다.

리순신은 로인의 장례를 후하게 치르도록 하였다.

살아남은 적들이 헤염을 쳐 간신히 기슭에 올랐으나 철룡이가 지휘하는 군사들과 백성들에 의하여 모조리 녹아났다.

그리나 리순신은 숙연히 무릎을 끓고 앉아 로인을 부축하고 있었다. 울돌바다 마지막싸움이 한창일 때 왜적들의 눈먼 총알에 로인이 전사하였던것이다.

그는 평범한 이 늙은 어부가 자기의 작전구상을 확인해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수 없었다고 생각하였다.

리순신은 로인의 장례를 후하게 치르도록 하였다.

* * *



소현서원

명승-석 담 구 곡

석담구곡은 황해남도 벽성군 석담천의 중류지역에 있는 명승지이다.

석담구곡이라는 이름은 돌못과 아홉개의 끝짜기로 이루어졌는데로부터 유래되었으며 매 구

곡들은 남쪽에서부터 시작하여 판암, 화암, 취병, 송애, 은병, 조협, 풍암, 금탄, 문산이라 불리우고 있다. 계절마다 독특한 풍경을 나타내는 석담구곡의 경치는 이곳의 자연풍치를 노래한

석담구곡의 3곡



청계당



요금정이 보이는 곳에서



느티나무

리이(1536년-1584년)의 『고산구곡가』(1579년)를 통하여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산마루에 있는 큰 바위가 마치 갓처럼 생긴 판암의 아침풍경은 볼수록 신비롭다. 봄이 오면 향기그윽한 연분홍색 진달래가 여러가지 모양의 바위들에 덮이여 꽃바위를 이루는 화암의 경치도 아름답기 그지없다.

록음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새들이 지저귀는 취병과 아찔한 벼랑우의 푸른 솔밭과 아래로는 거울같이 맑고 잔잔한 푸른 물이 있는 송애의 경치 또한 절경을 이룬다. 구곡가운데서

도 경치가 제일 좋은 곳은 맑고 푸른 석담에 주변산들의 자태가 그림파도 같이 비끼고 그앞의 넓은 곳에는 해묵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우는 은병이다.

이곳에는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인민의 뛰여난 건축술을 보여주는 옛 건물들이 있어 태고연한 풍경을 더욱 두드러지게 해준다.

조협은 수정같이 맑은 넓고 깊은 못과 편편한 바위들로 하여 천연의 낚시터로 되고있다. 풍암은 기암들이 벼랑을 이루고 사철 푸른 소나무가 무성한 곳인데 그속에 단풍나무가 뒤섞여 가을이면

온 꿀짜기가 푸른 비단에 붉은 수를 놓은듯 하다.

금탄에는 맑은 여울이 있는데 고요한 달밤에 흘러내리는 물소리를 듣노라면 마치 그것이 가야금을 타는 소리와 흡사하다.

독특한 겨울풍경의 아름다움으로 이름난 문산은 주위가 고요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글읽기를 하기엔 좋은 곳으로 일컬어왔다.

이와 같이 석담구곡은 관암의 봄풍경으로부터 문산의 겨울경치에 이르기까지 사철 색다르고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지는 명승지이다.

본사기자



칠보산 금강대

본사기자 김춘혁

마치 타오르는 봉화를 련상시키는 칠보산 금강봉의 금강대.
바위의 기이한 색과 모양도 볼만 하지만 높은 산정에서 자라는
소나무들의 푸르름과 어울린 그 모습 내 칠보의 이채로움 더해준다.

